

20대 청년여성 입직실태조사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3
제3장 기초분석: 첫 일자리	10
제1절 자료 및 표본	10
1. 자료: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10
2. 분석표본	12
제2절 첫 일자리 취득	15
제3절 첫 일자리 경과기간	17
1. 졸업 후 첫 일자리 경과기간	22
제4절 첫 일자의 임금수준	23
1. 월평균임금	23
2. 시간당 임금	26
제5절 첫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27
1.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27
2. 전반적 직무만족도	28
제4장 취업교육투자와 성과	31
제1절 취업교육투자	31
1. 취업사교육: 어학 관련	32
2. 취업사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증	34
3. 취업사교육: 공무원시험과 전문자격시험	36
제2절 취업교육투자와 첫 일자리	45

제3절 첫 일자리 취업 결정요인: 취업교육투자의 효과	50
1. 방법론	50
2. 추정결과	51
제4절 취업교육투자와 첫 일자리 임금수준	56
1. 방법론	56
2. 일반적 결정요인의 임금 효과	56
참고문헌	61

표 목 차

<표 1> 표본의 구성	14
<표 2> 졸업 후 첫 일자리 취득	16
<표 3> 첫 일자리 경과기간(전체)	19
<표 4> 첫 일자리 취득 소요기간(남성)	20
<표 5> 첫 일자리 경과기간(여성)	21
<표 6> 첫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	24
<표 7> 첫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	25
<표 8>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29
<표 9> 전반적 직무만족도	30
<표 10> 취업준비(전체)	39
<표 11> 취업준비(남성)	40
<표 12> 취업준비(여성)	41
<표 13> 취업준비:시험 등(전체)	42
<표 14> 취업준비:시험준비 등(남성)	43
<표 15> 취업준비:시험준비 등(여성)	44
<표 16> 취업준비와 첫 일자리(전체)	47
<표 17> 취업준비와 첫 일자리(남성)	48
<표 18> 취업준비와 첫 일자리(여성)	49
<표 19> 취업여부 추정결과	51
<표 20> 임금수준 추정결과	57

제1장 서론

‘좋은’ 대학을 가고 ‘괜찮은’ 직장을 잡아 ‘멋진’ 삶을 살겠다는 또는 반대로 ‘루저’의 삶을 보내지 않겠다는 단순한 생각이 중고등학교에서의 사교육의 보편화를 가져온 지 어언 20년이 되었다. 사교육의 조기화가 일어나 초등학교에까지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청년층의 취업을 위한 소위 ‘스펙 쌓기’는 도를 더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특정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교육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소위 ‘고시촌’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도 많이 들어 익히 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등교육에 대한 무분별한 수요는 고등교육투자의 수익률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교육이 없는 ‘저비용 균형’ 대신에 모두의 사교육을 통하여 아무도 순위 상변동이 없을 수 있는 ‘고비용 균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무도 사교육을 받지 않고 정상적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면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사교육이 존재할 때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옴에도 일부가 사교육을 하였을 때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순위 하락을 피하고자 너도나도 사교육을 수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대학 재학 중 또는 대학 졸업을 전후한 취업을 위한 다양한 준비과정(취업교육투자)이 대졸자의 첫 일자리 취업 여부와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과 첫 일자리에서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20대 청년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여성의 입직과정에서의 현안을 파악한 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2 20대 청년여성 입직실태조사

다음 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간략히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취업교육 투자와 첫 일자리 성과(첫 일자리 취업 여부, 경과기간, 임금수준 및 일자리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제Ⅵ장에서는 간단한 계량모형(프로빗모형과 회귀분석모형)을 추정하여 취업교육투자가 첫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제Ⅴ장에는 20대 청년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여성의 입직과정에서의 현안을 파악한 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¹⁾

1) 본고의 1~4장은 2012년 고용동향조사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바 있다.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청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분석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미취업탈출 기간, 취업여부, 임금수준, 대기업취업 또는 대기업정규직 취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 한 가지 종속변수를 선택하기도 하고 2~3개의 종속변수를 사용하여 동일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청년층이 노동시장 성과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는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함께, 가족관련 변수, 학교특성관련 변수, 그리고 취업준비관련 변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는 성별과 연령이 주로 사용되었고 가족관련 변수로는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부(wealth)의 세대 간 이전을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서 사용되었다. 학교관련특성에는 학교의 서열, 또는 서열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소재지, 국공립유형과 같은 특성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는 경우 입학생의 특성이 이미 대학입학당시에 선별되고 이러한 특성이 취업까지 연결된다는 가정 때문이다. 이외에 전공 계열과 같은 특성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전공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와 관련된 특성은 자격증 (여부 또는 개수), 근로경험, 직업훈련, 어학점수, 어학연수 경험, 취업프로그램참여 등이다. 이러한 취업준비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노동패널』(홍서연·안주엽, 2002)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취업준비와 관련된 변수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패널자료인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박환보, 2011; 강순

희·안준기, 2010; 우광호 등, 2010; 박가열·천영민, 2009; 김정숙, 2009; 최문경·이기엽, 2008; 황여정·백병부, 2008; 이규용·김용현, 2003)과 『청년패널』(우해봉·윤인진, 2008; 채구묵, 2007; 류장수, 2003; 류장수 2005)을 사용하였다.

청년층 미취업탈출기간을 분석한 홍서연과 안주엽(2002)은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연결하여 청년층과 일반실직경험자의 미취업기간 탈출확률의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탈출확률은 미취업기간이 긴 경우 낮아지는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학력, 졸업년도, 지역, 아르바이트경험 여부, 취직시점의 월평균 실업률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청년층의 경우 남성은 여성보다 미취업탈출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실직경험자에서의 결과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년의 미취업탈출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를 바탕으로 졸업 후 인턴프로그램에 참여보다는 졸업 이전에 현장실무경험을 갖는 것이 취업에 도움을 준다고 제언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이용하여 취업상태 및 미취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강순희·안준기(2010)는 전년도 실업상태를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실업경험의 낙인효과를 검정하였다. 전년도의 실업여부는 다음해에 취업확률을 낮추고 미취업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훈련 경험은 취업확률에서는 일관성이 없었지만 미취업기간은 짧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격증보유자의 경우 취업확률을 낮추고 미취업기간은 길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이병희 등(2002)의 연구도 유사한 연구결과 제시하였는데 학교 졸업 후의 미취업기간이 이후의 임금수준에 음의 영향력이 있는 것은 미취업기간의 장기화로 인적자원의 축적이 저해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류장수(2003, 2005)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을 이용하여 미취업탈출확률과 임금수준을 분석하였고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에서의 성과를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지방대졸업생은 수도권지역 졸

업자와 비교하여 미취업탈출확률과 임금수준이 낮았고, 가구소득이 높은 청년층은 미취업탈출확률과 임금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남성은 여성보다 임금수준은 높지만 미취업탈출기간에는 음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 시기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취업이 되는 경우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박성재·반정호(2006)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졸업자조사』를 이용하여 임금수준과 미취업탈출기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출신대학의 지역과 함께 졸업한 대학의 지역에 추가하여 학점, 취업 전 교육훈련 경험, 재학 중 일 경험, 자격증, 토익700점 이상, 취업준비여부와 같은 변수를 포함하였다. 학점이나 토익점수가 700점 이상, 취업준비를 한 경우에는 임금수준은 높았는데, 학점이나 정규직경험, 취업준비를 하였다는 경우에 미취업기간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준비활동을 사전에 하는 경우 의중임금이 높아져 취업까지의 기간은 길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전문대 졸업생의 경우에는 정규직경험이나 시간제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임금수준이 높았지만, 대학졸업생의 경우 시간제취업경험이 있으면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이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자료를 사용한 박성재(2005)의 연구는 노동시장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저급직종 치중도를 사용하였고 지방대졸업생이 서울지역 졸업생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우광호 등 (2010)은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이용하여 임금수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교육과 부가 세대 간에 이전하는 지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가족변수에서는 부의 학력보다 입학당시 가구소득이 첫 직장 임금수준에 영향력이 있음을 보였고 가족변수보다 취업준비활동에 해당하는 어학연수여부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이 있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청년층 임금수준을 높이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사교육여부는 소득이 낮은 계층(25분위와 50분위)에서 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경우에 취업사교육으로 인해 임금격차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최문경·이기업(2008)의 연구는 GOMS를 이용하여 구직활동에 초점을

두고 탈출확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학점, 자격증의 수, 어학연수, 직업훈련, 아르바이트, 서울이나 수도권과 같은 독립변수는 탈출확률을 높이는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구직활동을 한 경우가 취업을 빨리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였다.

이규용·김용현(2003)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출신대학과 취업준비노력(자격증 수, 학원·직업훈련 이수, 재학 중 근로경험)이 미취업탈출기간과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재학 중 근로경험은 특히 전문대 졸업생의 탈출확률을 높이고 임금수준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격증이 많으면 탈출확률은 높지만 임금수준에는 미치는 영향력은 모형에 따라 달라 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학원·직업훈련의 경우에는 미취업 탈출확률에는 영향력이 없지만 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변수인 남성은 여성과 비교하여 미취업탈출확률은 낮지만, 임금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고, 정규직인 경우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준비활동과 관련된 변수들을 비교적 다양하게 포함하고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이용하여 취업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변수인 경우에도 모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결과를 보인다.

황여정·백병부(2008)는 GOMS를 이용하여 취업여부와 대기업정규직 취업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학점, 대학의 취업지원활동에 대한 만족도, 어학연수비용은 취업확률과 대기업정규직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사교육 비용과 자격증의 수는 취업에는 영향력이 없고 대기업취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졸업 전 구체적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 취업확률은 낮지만 대기업취업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환보(2011)의 연구는 GOMS 자료가 가지고 있는 취업준비 변수와 함께 대학특성(준칙주의,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대학의 서열유형)과 관련된 자료를 연결하여 취업여부, 정규직취업, 대기업정규직취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령, 가계소득과 같은 개인·가족특성과 함께 성적, 어학연수비용, 학내 취업준비 프로그램참여, 학교의

정규직 취업률은 대졸자의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학연수비용은 정규직취업과 대기업정규직취업에도 양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성과에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훈련의 경우 학내 프로그램참여는 취업에 영향을 주지만 대기업·대기업정규직취업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업취업에는 학교 외 직업훈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가열·천영민(2009)의 연구는 GOMS 자료를 이용하여 졸업전후 구직활동 경험여부에 따라 표본을 분리하여 취업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자격증보유는 구직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취업확률을 높이고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취업확률을 낮추었고 어학연수경험은 대기업취업에서만 양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숙(2009)은 GOMS를 이용하여 어학연수와 영어사교육경험이 대기업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학점이 높거나 어학연수 또는 영어사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대기업취업확률이 높지만, 자격증의 수가 많은 경우 대기업정규직 취업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구묵(2007)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을 이용하여 취업여부, 정규직취업여부 및 임금수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성별은 취업여부에는 영향력이 없었고 임금수준에서는 남성이 여성과 비교하여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적과 자격증이 있는 경우 취업확률은 높아지지만 임금수준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해봉·윤인진(2008)은 교육과 1997년 경제위기가 청년층의 첫 일자리 획득에 미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패널』을 이용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파트타임경험,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 첫 일자리를 획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위기 이후 졸업한 청년층이 이전 졸업생보다 첫 일자리를 획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 이외에도 대학졸업생의 일자리로의 이행과정을 설명한 연구에는 외국어능력에 초점을 두고 외국어 능력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임천순·양병무, 2006), 어떠한 구직활동을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구직경로별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이병훈, 2002). 조영하 등(2008)의 연구는 특정대학의 2006년도 졸업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취

업여부, 전공일치 취업여부.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취업여부, 정규직취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취업경로를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대졸자의 노동 시장이행을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정지선 등 (2011)은 GOMS 자료를 이용하여 종사상지위, 열량일치도, 전공일치도, 취업목표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전공계열, 부의 학력, 가구소득과 함께 취업준비변수(재학 중 일 경험, 취업프로그램 참여, 진로관련 과목 수강, 사교육 경험, 어학연수 경험), 공식적인 구직경로를 사용하였는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취업준비변수보다 공식적인 구직경로를 사용한 경우가 각 종속변수에 양의 영향력이 있음을 보였다.

취업준비 관련변수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종속변수에 따라 유의성과 방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모형에 따른 것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정에서는 취업준비와 관련된 특성이 청년층 구직자의 다른 특성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가장 일관성 있게 나타난 변수는 어학연수라고 할 수 있으면, 근로 경험이나 자격증의 경우 유의수준 및 방향에서도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여부	임금수준	미취업 탈출확률	대기업/정규직 취업
아르바이트 근로 경험		(-) 이규용·김용현(2003) :전문대졸업생	(+) 홍서연·안주엽(2002) 최문경·이기엽(2008) 이규용·김용현(2003)	
시간제 경험 정규직 경험	(+) 우혜봉·윤인진(2008)	(+) 박성재·반정호(2006) :전문대졸업생 (-) 박성재·반정호(2006) :대학생의 경우	(-) 정규직경험 박성재·반정호(2006)	
직업 훈련 (일반)	(일관적 아님) 강순희·안준기(2010) (+)학내취업준비프로그램: 박환보(2011)	(+) 이규용·김용현(2003)	(+) 강순희·안준기(2010) 최문경·이기엽(2008) (영향력 없음) 이규용·김용현(2003)	

	취업여부	임금수준	미취업 탈출확률	대기업/정규직 취업
	보유	개 수	개 수	개 수
자격증 보유/자 격증의 수	(-) 강순희·안준기(2010) 박가열·천영민(2009) : 구직경험 있는 경우 (+) 박가열·천영민(2009) : 구직경험 없는 경우 채구목(2007) 우혜봉·윤인진(2008)	일관적 아님: 이규용·김용현(2003)	(+) 최문경·이기엽(2008) 이규용·김용현(2003)	(-) 김정숙(2009)
학점 어학 점수	(+) 황여정·백병부(2008) 박환보(2011) 채구목(2007)	(+) 박성재·반정호(2006) ; 학점, 어학점수	(-) 박성재·반정호(2006) (+) 최문경·이기엽(2008)	(+) 황여정·백병부(2008) 김정숙(2009)
어학 연수/ 비율		(+) 우광호 등(2010)	(+) 최문경·이기엽(2008)	(+) 박가열·천영민(2009) 김정숙(2009)
어학 연수 비용	(+) 황여정·백병부(2008) 박환보(2011)			(+) 황여정·백병부(2008) 박환보(2011)
취업준 비 여부		(+) 박성재·반정호(2006)	(-) 박성재·반정호(2006)	
취업사 교육		(+) 우광호 등(2010); 가구소득낮은 계층		(+) 황여정·백병부(2008) 김정숙(2009); 영어

제3장

기초분석: 첫 일자리

제1절 자료 및 표본

1. 자료: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 청년층의 취업실태와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을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청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국고용정보원이 2010년 2~3년제 및 4년제 대학졸업자(18,011명)를 대상으로 조사로부터 얻은 ‘2010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9GOMS1)’ 자료를 이용한다.

2010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9GOMS1)¹⁾는

① 현재 경제활동상태(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의 변별), ② 현재 일자리 정보²⁾, ③ 첫 일자리 정보³⁾, ④ 졸업 후 일자리 정보(현재 일

2) 현재 일자리 시작 시점, 아르바이트 여부, 산업, 사업체 형태, 직업, 사업체와 기업체 규모, 사업체 소재지,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판별을 위한 정보, 교대제, 승진 여부와 횟수, 사업체 유형, 주당 소정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휴일근무, 월평균임금과 임금산정방식, (11개 항목별 및 전반적인 그리고 업무에 대한) 일자리 만족도, 일과 교육 및 숙련수준의 일치도, 업무의 전공적합도, 대학 전공교육의 유용성,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을 위한 대학교육, 외국어능력 요건, 자격증 요건, 사회보험 적용, 부가급부 적용,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

자리와 첫 일자리를 제외하고 대학 졸업 후 경험한 모든 일자리)4), ⑤ 학교생활 정보 (출신 고등학교5)와 출신 대학교6), ⑥ 재학 중 학교(현재) 정보7), ⑦ 재학 중 일자리 경험(아르바이트 포함)8), ⑧ 어학연수 경험,9) ⑨ 자격증 취득10), ⑩ 직업교육 및 훈련 참여11), ⑪ 졸업 전 취업목표12), 졸업 전후 취업준비13), 취업을 위한 공무원14) 등과 전문자격15)을 위한

취업경로, 취업정보원, 채용기준(학력에서 외모까지 12개 항목), 일자리 적응의 어려움, 재직 중 일자리 제외, 졸업 후 첫 일자리 여부, 졸업 후 일자리 수, 주된 일자리 이외의 일자리(3개까지)에 대한 간략한 정보.

- 3) 첫 일자리에 대한 정보는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매우 유사한 수준. 다만 외국어능력 요건, 자격증 요건은 제외, 첫 일자리 종료 시점과 사유에 대한 정보 추가.
- 4) 일자리 여부 체크, (현재 및 첫 일자리를 제외한) 총 일자리 개수, 시작 및 종료 시점, 산업, 사업체형태, 직업, 사업체 및 기업체 규모, 사업장 소재지, 종사상지위, 고용형태(계약기간 등), 사업체 유형, 주당 소정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초과근로 시간, 휴일근무, 월평균임금과 임금산정방식,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일과 교육 및 숙련수준의 일치도, 업무의 전공적합도, 일자리 종료 사유에 대한 정보.
- 5) 소재지 및 계열, 졸업 시점.
- 6) 입학 시점(입학 또는 편입), 입학전형방법, 수학능력시험 점수(미공개), 대학 및 주전공 선택 사유, 기회가 주어지면 동일 전공 선택 여부,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 전공, 재학 중 7개 경력개발지원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유의성, 졸업 평점(만점), 영어 및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및 기타) 시험 응시 여부 및 점수(각 종류별), 대학에 대한 만족도(대학, 전공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7개 세부 항목), 대학 학비 마련 방법, 휴학 경험(여부 및 횟수, 시점 및 기간과 사유), 최종 졸업 학교 이외 학교 여부 및 유형과 전공 등에 대한 정보.
- 7) 대학 또는 대학원 여부, 입학 또는 편입 여부, 학교명, 소재지, (편)입학 시점, 전공, 학교유형 및 학위과정, 대학(원) 진학 사유, 대학전공 유지 여부 등.
- 8) 일자리 개수, 일자리 내용, 일한 기간, 인턴 여부, 종사상 지위, 주당 근로일수 및 일 근로시간, 근로소득, 근로 사유, 전공일치도, 취업에 유의성 등.
- 9) 방문국, 체류기간, 총비용.
- 10)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개수, 자격증 유형, 취득시기, 취득 목적과 목적 달성도, 총비용 및 본인 비용부담과 그 외 비용부담자, 대학전공 관련성, 취득을 위한 준비방법, 준비기간, 총소요기간 등.
- 11) 수강 여부 및 미수강 사유, 수강 완료 개수, 교육훈련의 명칭, 분야(23개), 시작 및 종료 시점, 총 수강시간, 유형, 방법, 수강장소, 수강 목적, 목적 달성 여부, 총비용 및 본인 부담비용, 비용지원 등.
- 12) 졸업 이전 취업목표 설정 여부 및 설정 시점, 취업목표 일자리의 의중임금, 주당 근로일수, 일 근로시간, 직업, 사업체 유형, 취업목표 달성 여부 등.
- 13) 구직활동에서는 (고시, 자격증, 공사(공단) 등 시험 준비를 제외. 졸업 전후 구직 경험여부, 최초 구직 시작 시점, 주당 구직 시간, 일자리 정보 취득 방법, 직업정보 인터넷사이트 방문, 지원 횟수, 면접 횟수, 일자리 제외 횟수, 일자리 제외 거

시험준비¹⁶), ⑫ 현재 구직활동¹⁷), ⑬ 향후 진로(1년 이내), ⑭ 인턴제 및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견해, ⑮기타 개인 정보¹⁸)로 구성되어 있다.

2. 분석표본

가. 분석표본의 선택과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표본선택과정을 실시한다. 첫째, 대학 졸업 당시 연령이 만 30세 미만인 응답자를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18,011개 표본 중 30세 이상인 응답자 1,498명이 제외되어 표본은 16,513개로 줄어든다. 둘째, 졸업 전후 시점에서 첫 일자리 취업까지의 경과기간이 변별되지 않는 10명의 응답자를 제외한다(표본은 16,503개로 축소). 셋째, 졸업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첫 일자리를 취득한 응답자 638명을 제외한다. 넷째, 첫 일자리가 변별되었으나 첫 일자리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150명의 응답자를 제외한다. 다섯째, 첫 일자리에서 일자리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27명 응답자를 제외한다. 여섯째, 첫 일자리에서 총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31명 응답자를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첫 일자리 취득 이전에 대학원에

-
- 절 경험 및 사유, 일자리지원 고려 항목(12개)의 중요성, 구직활동의 어려움 등.
- 14)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7급 및 9급 일반 및 8급 간호직과 10급 기능직 공무원시험, 교원임용시험, 공단 및 공사 시험 포함.
 - 15)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인, 언론사 등 포함.
 - 16) 시험 준비 동기, 준비 시점, 실제 총 준비기간, 응시횟수, 시험준비 방법, 월평균 소요비용, 최종 합격 여부 및 현재 시험준비 지속 여부 등.
 - 17) 재직 중 구직 사유, 총 구직기간, 주당 구직시간, 희망 근로시간 형태, 정규직 취업 희망 여부, 의중 임금, 일자리 지원횟수, 면접횟수, 일자리 체의 횟수, 체의 거절 사유와 사유, 희망 사업체 유형, 일자리 정보 취득 방법, 일자리 선택기준항목(12개)의 중요성, 구체적 구직 노력(13개 항목), 구직과정의 어려움 등.
 - 18) 혼인상태, 배우자 정보(최종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부양자녀의 수, 혼인시점, 부모와의 동거 여부,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원 수, 출생지 및 거주지, 부모의 최종학력 및 대학 입학 당시 직업, 대학 입학 당시와 현재 부모의 월평균소득, 개인 총 소득(지난 한 해), 사적이전수입과 이전지출 여부 및 금액, 군복무 경험 등.

진학하여 재학 중인 1,283명을 제외한다. 이러한 표본선택과정을 거쳐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표본은 14,374개이다. 이후 실증분석에 활용되는 주요 변수 중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표본에 대해서는 ‘○○ 무응답’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처리하여 가능한 표본의 제외를 최소화한다.

나. 표본 구성

다음 표는 분석에 사용되는 표본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 표본(14,374개, 381,652명에 해당)은 남성 표본 7,624개(185,387명에 해당), 여성 표본 6,750개(196,265명에 해당)로 이뤄지고, 가중치를 적용하였을 때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조금 넘는다. 이들 중 43%는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40%는 그 이후에, 17%는 그 이전에 (현재까지) 최종 학교(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졸업 당시 연령분포를 보면, 23~26세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3세 미만이 28%, 27세 이상 30세 미만이 12%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남성에서 졸업 당시 연령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60%(남성은 65%, 여성은 56%)가 4년제 일반대학 출신이며,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이며 여성에서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대학 졸업 표본은 306개(이 중 남성 표본은 88개)로 전체 중 1.5%(남성은 1% 미만)에 불과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표본의 구성

(단위: 명, %)

	표본			표본 비중			성별비중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표본	14,374	7,624	6,750	100.0	100.0	100.0	48.6	51.4
입학연도								
~2001년	2,839	2,766	73	17.1	34.1	1.0	97.1	2.9
2002~2004	6,498	3,680	2,818	42.9	48.9	37.3	55.3	44.7
2005~	5,037	1,178	3,859	40.0	17.0	61.7	20.7	79.3
졸업 연령								
23세 미만	3,479	308	3,171	28.3	4.3	50.9	7.4	92.6
23~26세	9,007	5,658	3,349	59.8	74.9	45.6	60.8	39.2
27~29세	1,888	1,658	230	11.9	20.8	3.5	85.0	15.0
대학 유형								
전문대학	4,642	2,333	2,309	38.1	34.5	41.5	43.9	56.1
일반대학	9,426	5,203	4,223	60.4	64.6	56.3	52.0	48.0
교육대학	306	88	218	1.5	0.9	2.1	28.8	71.2
대학 소재지								
서울	3,160	1,565	1,595	17.9	16.1	19.7	43.6	56.4
경기권	4,238	2,341	1,897	26.2	26.6	25.8	49.3	50.7
충청권	2,178	1,175	1,003	16.4	17.0	15.9	50.3	49.7
경상권	2,930	1,533	1,397	27.2	27.6	26.8	49.3	50.7
호남권	1,868	1,010	858	12.2	12.7	11.8	50.4	49.6
전공계열								
인문	1,442	527	915	9.6	6.4	12.6	32.5	67.5
사회	3,488	1,782	1,706	27.2	26.3	28.1	47.0	53.0
사범	1,230	324	906	7.4	3.5	11.2	22.6	77.4
공학	3,774	3,125	649	23.3	38.8	8.6	80.9	19.1
이학	1,681	790	891	10.2	9.1	11.2	43.2	56.8
의학	941	342	599	8.7	5.4	11.8	30.1	69.9
예체능	1,818	734	1,084	13.7	10.6	16.6	37.6	62.4
추가전공								
없음	12,461	6,814	5,647	88.0	90.3	85.8	49.9	50.1
있음	1,913	810	1,103	12.0	9.7	14.2	39.1	60.9
대학성적								
90% 이상	2,609	1,128	1,481	19.3	15.6	22.8	39.2	60.8
80% 미만	6,397	3,245	3,152	44.7	43.0	46.3	46.7	53.3
80% 미만	4,488	2,804	1,684	29.6	35.4	24.2	58.1	41.9
무응답	880	447	433	6.3	6.0	6.7	45.8	54.2
고등학교								
외고/과학고	212	105	107	1.3	1.3	1.4	47.5	52.5
문과	6,995	3,092	3,903	49.6	41.4	57.4	40.5	59.5
이과	4,648	3,069	1,579	29.7	37.7	22.0	61.8	38.2
그외	2,519	1,358	1,161	19.4	19.6	19.2	49.1	50.9

주: 각 비중은 자료에서 제공된 가중치를 적용.

제2절 첫 일자리 취득

다음 표는 표본의 특성별로 졸업 이후 조사시점 현재(조사기준시점 2010년 9월 1일)까지의 기간 중 첫 일자리 취득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¹⁹⁾ 전체적으로 표본 중 88%가 첫 일자리를 취득한 경험이 있으며 남성에서는 89%, 여성에서는 88%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입학연도의 구분별로 보면, 2001년 이전 입학 표본의 첫 일자리 취득 비중이 89%로 다소 높은 편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며, 졸업 당시 연령별로 볼 때에도 거의 차이가 없다. 대학 유형별 첫 일자리 취득 비중을 보면, 교육대학에서 92%로 일반대학의 88%보다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성 교육대학 졸업 표본에서는 94%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 일반대학 졸업표본에서 87%로 다소 낮다.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권에서 92%로 가장 높은 반면 충청권에서는 86%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남성과 여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취득 비중을 보면, 의학계열과 공학계열에서 20%를 넘는 반면 나머지 계열에서는 86%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추가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을 이수한 표본에서 첫 일자리를 취득하는 비중이 91%로 그렇지 않은 표본에서 89%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심하지 않은데, 이러한 차이는 여성에서 3.3%포인트로 남성(1.4%포인트)에서보다 크게 나타난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보면, 이과 표본의 취업률이 90%로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큰 차이는 없다.

대학성적별²⁰⁾ 첫 일자리 취득 비중을 보면, 평점이 90% 미만 80% 이상인 표본에서 89%로 다소 높게 나타나며 무응답 표본에서 86%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에서 두드러지며 남성에서는 평점 80% 이상 90미만과 90% 이상 표본에서 차이가 없다.

19) 현재까지 첫 일자리를 취득하지 못한 표본(우측단절된 표본, right-censored sample)의 경과기간은 19개월과 25개월로 포착되고 있다.

20) 만점(4.5, 4.3, 또는 4.0) 대비 평점의 비율을 구하여 사용.

〈표 2〉 졸업 후 첫 일자리 취득

(단위: 명, %)

	첫 일자리 취득 표본			첫 일자리 취득 비중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표본	12,770	6,822	5,948	88.4	89.0	87.9
입학연도						
~2001년	2,544	2,485	59	89.0	89.3	79.1
2002~2004	5,744	3,284	2,460	87.9	88.8	86.8
2005~	4,482	1,053	3,429	88.7	89.0	88.6
졸업 연령						
23세 미만	3,096	263	2,833	88.6	85.6	88.9
23~26세	7,993	5,075	2,918	88.3	89.2	86.9
27~29세	1,681	1,484	197	88.6	89.1	85.8
대학 유형						
전문대학	4,181	2,111	2,070	89.5	89.8	89.3
일반대학	8,308	4,634	3,674	87.7	88.6	86.6
교육대학	281	77	204	91.8	87.1	93.8
대학 소재지						
서울	2,843	1,417	1,426	89.9	90.6	89.4
경기권	3,879	2,159	1,720	91.5	92.1	90.9
충청권	1,884	1,016	868	85.7	86.0	85.4
경상권	2,548	1,356	1,192	87.1	88.4	85.8
호남권	1,616	874	742	86.3	85.9	86.7
전공계열						
인문	1,259	454	805	86.6	85.5	87.2
사회	3,031	1,544	1,487	86.5	85.9	87.0
사범	1,058	268	790	86.5	82.9	87.5
공학	3,469	2,882	587	91.7	92.0	90.5
이학	1,471	698	773	86.8	87.6	86.1
의학	892	325	567	94.4	94.6	94.3
예체능	1,590	651	939	86.4	88.1	85.4
추가전공						
없음	11,039	6,088	4,951	88.1	88.9	87.4
있음	1,731	734	997	90.5	90.3	90.7
대학성적						
90% 이상	2,317	1,014	1,303	88.4	89.6	87.7
80% 미만	5,723	2,920	2,803	89.1	89.6	88.7
80% 미만	4,488	2,804	1,684	87.9	88.5	87.0
무응답	880	447	433	86.2	86.2	86.1
고등학교						
외고/과학고	212	105	107	86.5	89.7	83.6
문과	6,995	3,092	3,903	87.2	86.6	87.6
이과	4,648	3,069	1,579	89.9	90.9	88.1
그외	2,519	1,358	1,161	89.5	90.4	88.7

주: 첫 일자리 취득 비중은 가중치를 적용.

제3절 첫 일자리 경과기간

첫 일자리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최종학교(대학교)를 졸업한 시점과 첫 일자리를 취득한 시점 사이에 경과된 기간(이후에는 ‘첫 일자리 경과기간’이라 한다)으로 정의한다.²¹⁾ <표 3>~<표 5>는 첫 일자리를 취득한 표본의 표본특성별 첫 일자리 경과기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가. 졸업 전 첫 일자리 취득

먼저 첫 일자리를 취득한 표본 중 졸업 이전에 취업한 비중은 24% 정도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비중은 남성에서 28%로 여성에서(20%)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졸업 이전 첫 일자리 취득 비중을 입학연도별로 보면, 2001년 이전 입학 표본에서 31%인 반면 2005년 이후 입학 표본에서 20% 미만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남성에서는 이러한 비중의 차이가 10%포인트에 이르고 있으며, 여성에서는 오히려 2002~2004년 입학 표본에서 22%로 가장 높고 2005년 이후 입학 표본에서와 3%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졸업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졸업 이전 취업 비중이 높아지는데, 남성에서는 23~26세에서 28%로 가장 높지만 27~29세와 차이가 없는 반면 여성에서는 23~26세에서 21%로 가장 높은 반면 27~29세에서 16.5%로 가장 낮게 나타나 다소 성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대학 유형별로 보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에서는 24%를 약간 상

21) 조사자료에서는 연도와 월 단위까지 정보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월 단위까지 경과기간 파악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에서는 졸업일을 28일로, 첫 일자리 취득일을 15일로 하였다. 따라서 실제 2월 26일 졸업한 후 3월 1일 취업된 경우 실제 경과기간은 3일이지만 자료에서는 1개월 이내로만 파악된다. 반면 2월 26일 졸업하고 3월 31일 취업한 경우 실제경과기간은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이지만 1개월 이내로 파악된다.

회하는 반면 교육대학에서는 0.4%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다.²²⁾ 이러한 현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일반대학 졸업 여성의 졸업 이전 첫 일자리 취업 비중은 20%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대학 소재지 별로 보면, 서울에서 30%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호남권에서는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남성에서 두드러지는데 서울에서 38%, 충청권에서 23%로 15%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에서는 서울에서 25%, 경상권에서 17%로 8%포인트 미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졸업 이전 첫 일자리 취득 비중을 전공별로 보면, 공학계열에서 30%를 넘는 반면 사범계열에서 7% 정도이나 의학계열에서는 13% 정도에 불과한 낮은 수준으로 전공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또한 인문계열과 이학계열에서 졸업 이전 취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공학계열과 사회계열에서 30%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점이 특이하며, 여성에서는 전반적 양상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또는 연계전공을 한 표본에서 졸업 이전 취업 비중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남성에서 더 뚜렷하다. 대학성적이 졸업 이전 취업 비중에는 다소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며, 남성에서는 평점 80%에서 여성에서는 80~5 이상 90% 미만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등학교의 계열을 보면, 남·여 모두 외고/과학고 출신에서 졸업 이전 취업 비중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2) 이는 교육대학 졸업과 함께 교사자격증이 주어지고 그 이후 취업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교육대학 졸업예정자는 졸업 이전에 취업을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23) 주로 졸업과 함께 또는 추가의 특정 과정을 통해 자격증이 부여되는 전공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첫 일자리 경과기간(전체)

(단위: %, 개월)

	졸업 이전	졸업이후				평균	
		반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후			
표본	23.7	44.0	16.4	15.8	8.0	(38.5)	
입학연도							
~2001년	31.1	34.8	18.1	16.0	9.0	(37.5)	
2002~2004	24.6	41.4	17.7	16.3	8.5	(38.1)	
2005~	19.6	50.8	14.3	15.3	7.2	(38.9)	
졸업 연령							
23세 미만	19.4	51.0	14.4	15.1	7.2	(40.3)	
23~26세	25.4	41.4	17.1	16.1	8.3	(37.9)	
27~29세	25.6	40.6	17.6	16.2	8.4	(37.1)	
대학 유형							
전문대학	24.2	46.4	14.8	14.6	7.4	(39.8)	
일반대학	24.1	42.0	17.4	16.6	8.5	(38.0)	
교육대학	0.4	62.7	18.1	18.8	5.9	(27.0)	
대학 소재지							
서울	30.3	38.4	16.6	14.6	8.2	(35.6)	
경기권	23.7	43.1	16.3	16.8	7.6	(34.0)	
충청권	21.9	43.9	16.9	17.2	8.6	(41.3)	
경상권	21.8	48.4	15.0	14.8	7.9	(44.7)	
호남권	20.6	44.9	18.6	15.9	8.2	(37.6)	
전공계열							
인문	21.2	40.8	19.2	18.8	9.0	(38.9)	
사회	27.8	39.8	16.7	15.7	8.8	(42.0)	
사범	7.2	55.7	15.2	21.9	7.5	(36.2)	
공학	30.5	39.3	16.1	14.0	7.6	(34.8)	
이학	21.6	44.1	17.2	17.1	8.4	(36.3)	
의학	12.8	62.0	13.8	11.4	5.2	(35.9)	
예체능	23.3	44.3	16.2	16.2	8.4	(40.3)	
추가전공							
없음	23.5	44.8	16.1	15.6	8.0	(38.8)	
있음	25.2	38.5	18.4	17.9	8.4	(36.3)	
대학성적							
90% 이상	24.0	46.0	15.8	14.3	7.7	(39.4)	
80% 미만	23.5	45.0	16.3	15.2	7.8	(38.3)	
80% 미만	23.8	41.3	17.5	17.4	8.5	(37.7)	
무응답	24.5	43.8	14.0	17.7	8.4	(40.3)	
고등학교							
외고/과학고	31.9	37.3	13.8	17.0	9.0	(41.5)	
문과	22.2	43.8	17.2	16.8	8.4	(39.4)	
이과	24.7	45.2	16.0	14.1	7.5	(36.2)	
그외	25.5	43.2	15.2	16.1	7.8	(39.2)	

주:()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표 4〉 첫 일자리 취득 소요기간(남성)

(단위: %, 개월)

	졸업이전	졸업이후			평균	
		반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후		
표본	27.5	39.7	17.0	15.8	8.3	(36.8)
입학연도						
~2001년	31.4	34.7	18.3	15.5	8.9	(37.2)
2002~2004	26.6	41.2	16.9	15.3	8.1	(36.5)
2005~	21.9	45.6	14.5	18.1	7.8	(36.8)
졸업 연령						
23세 미만	15.7	53.1	13.8	17.4	7.9	(37.9)
23~26세	28.2	39.2	16.8	15.8	8.3	(36.9)
27~29세	27.2	39.0	18.1	15.8	8.5	(36.3)
대학 유형						
전문대학	27.5	39.5	16.7	16.4	8.2	(37.1)
일반대학	27.8	39.7	17.1	15.3	8.4	(36.8)
교육대학	0.0	54.0	15.6	30.4	7.8	(29.9)
대학 소재지						
서울	37.6	35.3	14.9	12.2	8.2	(33.8)
경기권	26.9	40.3	16.6	16.2	7.7	(32.2)
충청권	22.6	38.7	18.5	20.1	9.3	(39.9)
경상권	26.8	43.1	15.7	14.4	8.1	(43.1)
호남권	23.4	38.2	21.0	17.4	8.9	(35.5)
전공계열						
인문	23.6	38.6	21.3	16.6	9.3	(37.7)
사회	30.5	35.9	17.8	15.8	9.4	(40.5)
사범	8.0	43.9	19.7	28.4	9.2	(33.5)
공학	31.2	38.2	16.6	14.0	7.7	(34.4)
이학	23.2	41.5	17.9	17.5	8.5	(34.5)
의학	16.8	58.8	10.7	13.7	5.3	(33.4)
예체능	23.4	42.7	15.6	18.3	8.4	(38.8)
추가전공						
없음	27.1	40.2	16.8	15.9	8.3	(36.9)
있음	30.6	35.5	18.6	15.2	8.5	(35.8)
대학성적						
90% 이상	28.1	42.2	15.3	14.5	7.9	(37.9)
80% 미만	28.6	39.8	16.7	14.9	8.1	(36.8)
80% 미만	25.8	38.6	18.3	17.3	8.7	(36.1)
무응답	27.6	39.4	15.2	17.8	8.8	(38.5)
고등학교						
외고/과학고	36.5	37.4	8.2	17.9	8.7	(42.5)
문과	26.5	39.3	17.3	16.9	8.9	(38.4)
이과	28.0	41.9	16.7	13.5	7.5	(34.6)
그외	27.8	36.7	17.3	18.1	8.5	(36.7)

주: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표 5〉 첫 일자리 경과기간(여성)

(단위: %, 개월)

	졸업이전	졸업이후			평균	
		반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후		
표본	20.2	48.1	15.9	15.9	7.7	(40.1)
입학연도						
~2001년	19.1	37.2	11.0	32.7	12.0	(45.9)
2002~2004	22.1	41.6	18.7	17.6	8.8	(39.9)
2005~	19.1	52.1	14.2	14.6	7.0	(39.5)
졸업 연령						
23세 미만	19.7	50.9	14.5	14.9	7.2	(40.5)
23~26세	20.9	44.8	17.5	16.7	8.3	(39.3)
27~29세	16.5	50.0	14.4	19.0	8.3	(42.0)
대학 유형						
전문대학	21.6	51.8	13.4	13.2	6.8	(41.9)
일반대학	19.9	44.6	17.6	17.9	8.5	(39.3)
교육대학	0.6	65.9	19.1	14.4	5.1	(25.0)
대학 소재지						
서울	24.6	40.9	17.9	16.6	8.2	(37.0)
경기권	20.6	45.9	16.1	17.4	7.5	(36.0)
충청권	21.1	49.2	15.3	14.3	7.9	(42.5)
경상권	16.8	53.7	14.2	15.3	7.7	(46.2)
호남권	17.8	51.6	16.2	14.4	7.5	(39.5)
진공계열						
인문	20.1	41.8	18.2	19.9	8.9	(39.5)
사회	25.4	43.3	15.7	15.7	8.4	(43.2)
사범	6.9	59.0	14.0	20.1	7.0	(36.7)
공학	27.6	44.4	14.2	13.8	7.3	(36.6)
이학	20.4	46.2	16.6	16.8	8.3	(37.7)
의학	11.1	63.3	15.2	10.4	5.2	(37.1)
예체능	23.3	45.3	16.6	14.9	8.3	(41.3)
추가전공						
없음	19.9	49.4	15.5	15.2	7.6	(40.7)
있음	21.7	40.4	18.2	19.6	8.3	(36.7)
대학성적						
90% 이상	21.2	48.5	16.1	14.2	7.6	(40.5)
80% 미만	19.0	49.6	15.9	15.5	7.5	(39.5)
80% 미만	21.0	45.0	16.3	17.6	8.3	(40.1)
무응답	21.8	47.5	13.0	17.6	8.0	(42.0)
고등학교						
외고/과학고	27.5	37.2	19.2	16.1	9.3	(40.9)
문과	19.4	46.8	17.1	16.7	8.0	(40.1)
이과	19.1	50.9	14.9	15.1	7.4	(38.8)
그외	23.3	49.5	13.1	14.0	7.2	(41.4)

주: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1. 졸업 후 첫 일자리 경과기간

표에서 보듯, 첫 일자리 취득자 중 44%는 졸업 이전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1년 이후에 첫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중은 16% 정도로 나타난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반면 이내에 취업할 비중이 40%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낮은 반면 여성에서는 48%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1년 이후에 취업하는 비중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16% 정도 수준이다.

졸업 이후 첫 일자리에 취업한 표본의 평균 경과기간은 8.0개월로 나타나는데²⁴⁾ 남성에서는 8.3개월로 여성의 7.7개월보다 다소 길게 나타난다. 첫 일자리 평균기간을 입학년도별로 보면, 2001년 이전 입학 표본에서 9.0개월에 이르는 반면 2005년 이후 최근 입학 표본에서는 7.2개월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남녀 모두에게 유사하다. 졸업 당시 연령별로 보면, 졸업 당시 연령과 경과기간 사이에는 다소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여성에게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첫 일자리 평균 경과기간을 대학 유형별로 보면, 교육대학에서는 6개월 미만인 반면 일반대학에서는 8.5개월에 이르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남성(7.7개월과 8.4개월)보다는 여성(5.1개월과 8.5개월)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학소재지별 경과기간을 보면, 졸업 이전 취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충청권에서 8.6개월로 가장 길고 경기권에서 7.6개월로 나타나 1개월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서는 서울에서 8.2개월로 가장 길고 여타 지역에서는 7.5~7.9개월로 상대적으로 지역간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전공별 첫 일자리 평균 경과기간을 보면,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에서 9.0개월과 8.8개월로 가장 길고, 졸업 이전 취업 비중이 낮았던 의학계열에서는 5.2개월로 가장 짧게 나타나지만 사범계열에서는 7개월 중반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사범계열에서 평균 9개월을 상회하고 있으며, 여성에서는 인문계열에서 9개월 가까운 수

24) 엄격한 의미에서는 평균 경과기간이 8개월이라면 8개월 이상 9개월 이내로 해석하여야 한다.

준이다. 복수진공, 부진공 또는 연계진공을 이수한 표본에서는 졸업 이전 취업 비중은 높은 반면 그렇지 않았을 때 경과기간은 다소 길게 나타난다. 평점이 경과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으나 90% 이상에서는 7.7개월인 반면 80% 미만에서는 8.5개월로 다소 긴 것을 알 수 있다. 졸업 이전 취업 비중이 가장 높았던 외교/과학고 출신 표본에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 평균 경과기간이 9.0개월(남성에서는 8.7개월로 문과보다는 짧으나 여성에서는 9.3개월)로 상대적으로 매우 길게 나타난다.

제4절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

1. 월평균임금

다음 표는 경과기간별 남성과 여성의 첫 일자리에서의 월평균임금을 표본특성별로 보여주고 있다.²⁵⁾ 무엇보다 먼저 남성의 임금수준이 월평균 193만 원으로 여성의 152만 원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전체 평균 196만 원). 경과기간별로 보면, 졸업 이전 취업자의 임금수준이 남성 222만 원, 여성 162만 원으로 졸업 이후 취업자의 평균 임금보다 15~2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졸업 이전에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채용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학연도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최근 입학일수록 임금수준이 낮고 졸업 당시 연령이 많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에서는 졸업 당시 연령이 23~26세에 일 때 임금수준이 가장 높다.

25) 현재 일자리가 첫 일자리이면, ‘현 직장(일자리에서 근로소득)’을 월평균과 ‘급여형태별’로 묻고 있으며 이들 정보로부터 무응답을 처리한 추정치(imputation)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첫 직장(일자리)에서 근로소득’은 첫 직장을 그만두기 전 3개월의 평균값(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실제 근무기간 중 평균값)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므로 불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근로소득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표 6〉 첫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월)

	남 성					여 성				
	전체	졸업 이전	반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후	전체	졸업 이전	반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후
전체	193	222	187	179	173	152	162	150	154	141
입학연도										
~2001	219	260	209	197	186	175	178	199	197	141
2002~2004	181	202	179	167	165	166	194	161	163	149
2005~	175	182	174	170	174	143	140	145	146	135
졸업 연령										
22세 이하	155	169	151	159	150	138	138	140	141	132
23~26세	189	216	183	175	172	166	188	163	165	147
27~29세	214	251	211	192	182	161	161	159	164	162
대학 유형										
전문대학	165	175	162	161	162	135	134	137	137	124
일반대학	208	247	200	188	180	163	185	159	162	148
교육대학	191	.	190	192	193	192	200	192	197	184
대학 소재지										
서울	240	280	229	204	196	179	207	176	166	156
경기권	181	199	181	169	165	142	146	141	150	136
충청권	184	210	179	176	172	147	150	144	148	148
경상권	188	213	181	177	176	148	147	149	157	134
호남권	178	193	174	177	167	143	150	145	140	130
전공계열										
인문	184	227	180	172	150	152	178	145	151	143
사회	201	242	186	186	172	147	162	142	151	133
사범	189	220	192	176	183	155	150	150	163	164
공학	199	225	194	177	178	161	193	150	155	141
이학	189	215	181	185	175	149	159	150	146	137
의학	197	169	206	194	195	182	151	187	192	172
예체능	159	166	156	159	160	129	140	128	133	115
추가전공										
없음	191	217	185	178	173	149	155	149	151	138
있음	214	261	206	181	177	168	201	158	167	151
대학성적										
90% 이상	193	218	189	177	173	156	166	156	156	141
80% 미만	195	226	186	184	172	154	165	152	157	142
80% 미만	191	221	187	173	173	146	159	142	148	138
무응답	191	208	186	181	183	144	145	145	144	139
고등학교										
외고/과학고	258	301	245	317	172	210	260	197	185	186
문과	191	227	182	180	167	150	162	148	153	140
이과	204	235	198	182	184	167	177	169	166	148
그외	171	179	168	166	170	134	140	132	137	130

〈표 7〉 첫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

(단위: 원/시간)

	남성					여성				
	전체	졸업 이전	반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후	전체	졸업 이전	반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후
전체	9,545	10,856	9,199	8,918	8,811	7,939	8,400	7,805	8,108	7,588
입학연도										
~2001	10,910	12,875	10,273	9,960	9,479	9,443	9,685	10,230	12,389	7,417
2002~2004	8,948	9,715	8,914	8,273	8,450	8,952	10,155	8,680	8,693	8,364
2005~	8,513	9,007	8,298	8,427	8,528	7,317	7,179	7,367	7,604	7,037
졸업 연령										
22세 이하	7,787	8,320	7,615	8,037	7,631	7,142	7,116	7,140	7,406	6,931
23~26세	9,344	10,511	9,005	8,740	8,749	8,810	9,773	8,627	8,730	8,179
27~29세	10,620	12,442	10,337	9,650	9,293	8,430	8,581	8,267	8,726	8,501
대학 유형										
전문대학	7,965	8,309	7,782	7,809	7,990	6,818	6,753	6,895	7,005	6,436
일반대학	10,393	12,215	9,945	9,491	9,251	8,703	9,757	8,466	8,658	8,167
교육대학	10,001		10,042	9,766	10,048	10,070	11,475	10,179	10,033	9,562
대학 소재지										
서울	11,955	13,590	11,335	10,612	10,352	9,418	10,768	9,180	8,756	8,717
경기권	9,012	9,843	8,887	8,539	8,429	7,435	7,620	7,315	7,806	7,191
충청권	9,336	10,617	9,088	8,726	8,939	7,779	7,888	7,643	7,907	7,950
경상권	9,126	10,224	8,762	8,655	8,689	7,625	7,349	7,665	8,228	7,226
호남권	8,744	9,536	8,560	8,652	8,191	7,468	7,884	7,466	7,572	6,843
전공계열										
인문	9,474	11,361	9,317	8,997	7,765	8,292	9,723	7,811	8,166	7,974
사회	9,964	11,921	9,226	9,168	8,753	7,742	8,453	7,477	7,932	7,134
사범	10,030	10,430	10,070	9,376	10,309	8,124	7,942	7,727	8,674	8,968
공학	9,749	10,961	9,467	8,757	8,989	8,238	9,685	7,643	8,179	7,319
이학	9,327	10,426	8,983	9,350	8,663	7,823	8,177	7,846	7,779	7,372
의학	9,332	8,082	9,617	9,552	9,473	9,016	7,482	9,124	9,734	8,947
예체능	7,947	8,145	7,760	7,986	8,098	6,945	7,147	7,024	7,041	6,281
추가전공										
없음	9,412	10,629	9,092	8,883	8,706	7,760	8,007	7,709	7,954	7,403
있음	10,770	12,711	10,322	9,210	9,817	8,977	10,493	8,485	8,864	8,419
대학성적										
90% 이상	9,635	10,715	9,455	8,801	8,950	8,115	8,579	8,044	8,143	7,636
80% 미만	9,709	11,085	9,229	9,180	8,943	8,023	8,484	7,900	8,244	7,630
80% 미만	9,321	10,687	9,061	8,613	8,617	7,723	8,272	7,508	7,841	7,509
무응답	9,440	10,443	9,061	9,325	8,823	7,504	7,731	7,279	7,987	7,474
고등학교										
외고/과학고	12,531	14,057	11,693	17,065	9,099	11,087	13,329	10,211	10,033	10,539
문과	9,530	11,183	9,060	8,952	8,627	7,925	8,451	7,754	8,102	7,613
이과	10,127	11,648	9,744	9,225	9,272	8,672	9,101	8,674	8,764	8,035
그외	8,248	8,400	8,129	8,021	8,471	6,932	7,229	6,810	7,088	6,722

대학 유형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일반대학 졸업자의 평균임금이 월 208만 원으로 전문대학 졸업생의 165만 원보다 26%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에서는 교육대학 졸업생의 임금수준이 월 192만 원으로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생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교육대학 졸업생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 임금수준의 차이가 전혀 없다. 대학소재지별 첫 일자리 임금수준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서울에서 240만 원과 179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남성에서는 호남권, 여성에서는 경기권과 호남권에서 낮은 편이다.²⁶⁾ 상대적으로 서울과 비서울의 차이는 남성에서 큰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에서의 전공별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보면, 남성에서는 사회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에서 200만 원을 전후한 수준인 반면 예체능계열에서는 160만 원 미만에 불과하며, 인문계열에서 184만 원으로 다소 낮은 편이다. 여성에서는 의학계열에서 182만 원으로 가장 높고 남성과의 차이도 15만 원에 불과한 반면 예체능계열에서는 129만 원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사회계열에서 147만 원으로 낮지는 않지만 남성과의 차이가 54만 원이나 된다. 추가전공을 이수하면 남성에서는 23만 원, 여성에서는 19만 원 정도 평균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평점과 임금수준 사이에는 남성에서는 어떠한 관계도 존재하지 않거나 오히려 일부 역전되는 경우도 있으며, 여성에서는 평점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외교/과학고 출신의 취업자가 이과나 문과 또는 그 외 계열 출신의 취업자에 비해 54~87만 원(여성에서는 43~76만 원) 높은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괄목할 만하다.

2. 시간당 임금

다음 표는 경과기간별 남성과 여성의 첫 일자리에에서의 시간당임금을

26) 지방대 졸업생에 대한 임금차별이라기 보다는 서울 소재 대학의 졸업자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서울에 소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표본특성별로 보여주고 있다.²⁷⁾ 월평균임금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시간당 임금은 9천 6백 원인 반면 여성에서는 7천 9백 원으로 남성의 임금이 여성 임금보다 2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전체 평균 8천 7백 원). 경과기간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졸업 이전 취업자의 시간당 임금이 1만 원을 상회하고 경과기간이 길수록 낮아지는(1년 이후는 8천 8백원에 불과) 반면 여성에서는 졸업 이전 취업자에서는 8천 4백 원이며, 반년 초과 1년 이내 취업자의 시간당 임금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다.

제5절 첫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1.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다음 두 표는 남성과 여성의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와 직무(업무)에 대한 만족도의 경과기간별 평균을 표본 특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일자리 만족도를 보면, 남성의 평균은 3.42로 여성의 3.34보다 다소 높으며, 경과기간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졸업 이전 취업과 1년 이후 취업에서 각각 3.46과 3.45로 반년 이내와 1년 이내의 3.38이나 3.41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커다란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성에서는 졸업 이전 취업자의 일자리 만족도가 3.31로 상대적으로 낮고 1년 이후 취업에서 3.3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남성의 졸업 이전 취업을 제외하면,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다소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 이는 경과기간이 지날수록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반면 자기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다는 측면과 의중임금이 낮아져 만족하는 경향

27)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20~70시간으로 제한하고, 주당 초과근로는 20시간으로 제한하여 주당 총 근로시간을 구한 후 이에 (30.5/7)를 곱하여 월근로시간을 구한 후 월평균임금을 월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임금을 계산한다. 여기서 초과근로수당(초과근로에 대한 할증)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있는 측면이 모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²⁸⁾

2. 전반적 직무만족도

다음 표에서 보듯, 전반적 직무만족도는 남성에서는 3.47로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나 여성에서는 3.39로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보다 다소 낮은 편이며, 직무만족도 역시 남성에서 다소 높은 편으로 통상적으로 만족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보다 긍정적인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직무만족도를 경과기간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졸업 이전 취업(3.52)을 제외하면 경과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며, 여성에서는 전체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으나 경과기간이 길수록 아주 미세하게 높아진다.

전체적으로 일자리 만족도의 측면에서 청년층의 첫 일자리 경과기간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으며, 취업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8) 청년층의 첫 일자리에서의 일자리 만족도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통상 이직률이 높은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런 일자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8〉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남성					여성				
	전체	졸업 이전	반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후	전체	졸업 이전	반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후
전체	3.42	3.46	3.38	3.41	3.45	3.34	3.31	3.33	3.36	3.39
입학연도										
~2001년	3.49	3.60	3.40	3.46	3.49	3.40	3.37	3.42	3.93	3.20
2002~2004	3.37	3.36	3.37	3.36	3.42	3.35	3.39	3.31	3.37	3.39
2005~	3.40	3.39	3.37	3.43	3.47	3.33	3.26	3.34	3.35	3.39
졸업 연령										
23세 미만	3.46	3.55	3.41	3.64	3.36	3.34	3.26	3.33	3.41	3.38
23~26세	3.40	3.44	3.36	3.39	3.46	3.35	3.35	3.34	3.33	3.39
27~29세	3.46	3.53	3.43	3.44	3.44	3.37	3.50	3.32	3.25	3.48
대학 유형										
전문대학	3.27	3.27	3.22	3.34	3.33	3.27	3.23	3.27	3.28	3.31
일반대학	3.48	3.56	3.45	3.43	3.50	3.37	3.38	3.34	3.38	3.41
교육대학	4.09	.	3.99	4.22	4.20	4.03	4.00	4.04	4.02	3.99
대학 소재지										
서울	3.54	3.59	3.48	3.52	3.58	3.36	3.40	3.30	3.39	3.40
경기권	3.36	3.38	3.33	3.34	3.44	3.29	3.30	3.30	3.22	3.32
충청권	3.47	3.52	3.46	3.49	3.43	3.33	3.23	3.31	3.35	3.49
경상권	3.35	3.36	3.32	3.38	3.41	3.34	3.21	3.33	3.46	3.38
호남권	3.45	3.57	3.41	3.36	3.48	3.47	3.48	3.47	3.46	3.46
전공계열										
인문	3.41	3.54	3.41	3.40	3.28	3.31	3.31	3.27	3.31	3.38
사회	3.45	3.50	3.41	3.41	3.50	3.32	3.32	3.30	3.41	3.28
사범	3.67	3.62	3.69	3.76	3.60	3.63	3.46	3.62	3.70	3.65
공학	3.40	3.47	3.34	3.35	3.46	3.36	3.39	3.35	3.36	3.36
이학	3.44	3.47	3.42	3.47	3.42	3.32	3.33	3.26	3.30	3.50
의학	3.37	3.27	3.34	3.40	3.62	3.36	3.17	3.36	3.37	3.51
예체능	3.33	3.28	3.32	3.44	3.33	3.21	3.25	3.19	3.18	3.21
추가진공										
없음	3.41	3.45	3.37	3.41	3.45	3.34	3.29	3.34	3.35	3.38
있음	3.48	3.57	3.43	3.42	3.52	3.38	3.42	3.30	3.43	3.44
대학성적										
90% 이상	3.49	3.47	3.50	3.51	3.46	3.41	3.37	3.37	3.46	3.53
80% 미만	3.44	3.49	3.39	3.47	3.43	3.35	3.30	3.36	3.34	3.36
80% 미만	3.36	3.41	3.32	3.30	3.46	3.28	3.27	3.25	3.29	3.34
무응답	3.41	3.53	3.28	3.36	3.53	3.33	3.34	3.28	3.48	3.35
고등학교										
외고/과학고	3.76	3.87	3.71	3.70	3.70	3.68	3.54	3.64	3.98	3.67
문과	3.44	3.52	3.38	3.44	3.44	3.33	3.27	3.34	3.35	3.37
이과	3.44	3.48	3.42	3.39	3.52	3.41	3.38	3.40	3.37	3.53
그외	3.30	3.25	3.26	3.37	3.37	3.28	3.32	3.24	3.35	3.25

주: 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

〈표 9〉 전반적 직무만족도

	남성					여성				
	전체	졸업 이전	반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후	전체	졸업 이전	반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후
전체	3.47	3.52	3.43	3.45	3.49	3.39	3.37	3.38	3.41	3.43
입학연도										
~2001년	3.53	3.64	3.45	3.50	3.54	3.50	3.42	3.65	3.62	3.35
2002~2004	3.43	3.43	3.43	3.41	3.47	3.42	3.46	3.36	3.45	3.47
2005~	3.45	3.49	3.42	3.47	3.44	3.37	3.31	3.39	3.38	3.41
졸업 연령										
23세 미만	3.45	3.71	3.43	3.53	3.23	3.37	3.31	3.37	3.42	3.40
23~26세	3.46	3.50	3.43	3.44	3.50	3.41	3.43	3.39	3.41	3.46
27~29세	3.51	3.58	3.46	3.48	3.52	3.41	3.59	3.35	3.27	3.53
대학 유형										
전문대학	3.35	3.37	3.32	3.39	3.35	3.32	3.27	3.33	3.33	3.35
일반대학	3.53	3.60	3.48	3.48	3.55	3.43	3.45	3.39	3.43	3.47
교육대학	3.96	.	3.96	3.86	4.00	3.93	4.00	3.98	3.86	3.79
대학 소재지										
서울	3.56	3.61	3.48	3.56	3.59	3.42	3.51	3.32	3.47	3.49
경기권	3.44	3.45	3.43	3.40	3.50	3.37	3.38	3.37	3.32	3.40
충청권	3.51	3.61	3.49	3.51	3.45	3.36	3.25	3.37	3.35	3.49
경상권	3.41	3.42	3.38	3.42	3.45	3.36	3.20	3.38	3.42	3.38
호남권	3.50	3.65	3.44	3.43	3.49	3.51	3.57	3.50	3.54	3.47
전공계열										
인문	3.47	3.60	3.45	3.39	3.44	3.37	3.40	3.34	3.39	3.39
사회	3.49	3.58	3.44	3.44	3.50	3.33	3.35	3.30	3.39	3.32
사범	3.70	3.63	3.67	3.90	3.62	3.63	3.44	3.62	3.71	3.67
공학	3.44	3.50	3.40	3.39	3.48	3.41	3.43	3.43	3.34	3.40
이학	3.48	3.53	3.46	3.50	3.43	3.42	3.49	3.30	3.45	3.60
의학	3.45	3.36	3.41	3.54	3.63	3.39	3.12	3.43	3.36	3.47
예체능	3.44	3.39	3.43	3.53	3.45	3.33	3.36	3.31	3.32	3.34
추가전공										
없음	3.46	3.51	3.42	3.44	3.47	3.38	3.34	3.38	3.38	3.42
있음	3.59	3.62	3.54	3.58	3.66	3.46	3.54	3.36	3.54	3.51
대학성적										
90% 이상	3.56	3.59	3.55	3.57	3.53	3.44	3.42	3.40	3.46	3.57
80% 미만	3.48	3.52	3.44	3.49	3.49	3.41	3.38	3.42	3.41	3.42
80% 미만	3.43	3.49	3.39	3.37	3.47	3.33	3.34	3.30	3.35	3.37
무응답	3.40	3.48	3.30	3.37	3.51	3.36	3.29	3.36	3.41	3.39
고등학교										
외고/과학고	3.67	3.68	3.59	3.80	3.73	3.56	3.42	3.48	4.09	3.35
문과	3.50	3.57	3.45	3.51	3.48	3.38	3.35	3.38	3.38	3.43
이과	3.49	3.55	3.47	3.41	3.54	3.45	3.39	3.44	3.41	3.59
그외	3.36	3.35	3.32	3.40	3.41	3.34	3.41	3.30	3.45	3.28

주: 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

제4장 취업교육투자과 성과

제1절 취업교육투자

『대졸자조사』에서는 청년층이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을 전후한 시기에 취업을 위해 쏟는 다양한 노력을 포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노력들 중 대학 ‘교육과정 이외에 인적자본 수준을 높이고자 추가로 비용과 일정한 시간을 투입하는 행위’를 ‘취업사교육((에 대한) 투자)’이라고 정의한다²⁹⁾. 본고에서는 조작적 정의에 따른 취업사교육에 (해외)어학연수, (공식) 영어시험,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을 포함한다.

29) 인적자본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취업사교육투자라기보다는 취업준비로 분류된 항목으로는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참여(① 진로, 취업에 관해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 ② 직장체험프로그램(인턴 포함), ③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④ 교내 취업박람회, ⑤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 상담프로그램, ⑥ 면접 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⑦ 취업캠프 등), 재학 중 일자리 경험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취업 여부 및 첫 일자리에서 임금수준을 추정할 때 설명변수로 이들을 포함한다.

1. 취업사교육 : 어학 관련

가. 어학연수

어학 관련 취업사교육은 어학연수와 영어시험이 포함된다. 먼저 어학 연수를 보면, 『대졸자조사』에서는 어학연수 경험 여부와 국가, 어학연수 기간 및 총비용에 대한 정보(어학연수 경험이 2회 이상이면 체류기간이 긴 순으로 3개까지)를 파악하고 있다.³⁰⁾

대학유형과 전공별 대졸자의 어학연수 경험 실태를 보면, 대졸자 중 15%가 약 1350만 원을 들여 평균 9.4개월의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어학연수 경험이 다소 많으나 연수기간은 다소 짧고 연수비용도 다소 적다.

대학유형별로 어학연수 경험 비중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대학 졸업생 중에서는 20%를 상회하는 반면 교육대학 졸업생 중에서는 10% 정도이며 전문대학 졸업생 중에서는 5% 정도이다. 이를 전공별로 보면, 인문계열에서 36%(여성에서는 38%)로 월등히 높고, 사회계열과 공학계열 및 이학계열에서는 15%를 전후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예체능계열과 사범계열에서는 8% 정도의 낮은 수준이며, 의학계열에서는 5% 정도에 불과하다.

어학연수 기간을 대학유형별로 보면, 일반대학에서는 거의 10개월에 이르는 반면 교육대학에서는 5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전공별로는 어학연수 경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인문계열에서 11개월로 가장 긴 반면 사범계열에서는 7.3개월로 가장 짧다.

어학연수 비용을 대학유형별로 보면, 일반대학에서 1,422만 원인 반면 어학연수 기간이 짧은 교육대학에서는 900만 원 정도이나 단위기간 당 비용이 높고, 전문대학에서는 844만 원으로 단위기간 당 비용이 낮다. 전

30)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어학연수 간 나라는?’, ‘어학연수를 위해 해당 국가에 체류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어학연수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서 단순한 해외여행 및 교환학생 경험, 기업 등에서 이뤄지는 해외교환과건 근무, 해외직무 연구 등은 어학연수에서 제외.

공별로는 사회계열과 인문계열에서 1,422만 원과 1,394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의학계열과 사범계열에서 1,089만 원과 1,103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나. 공적 영어시험

『대졸자조사』에서는 공식 영어시험인 토익(TOEIC), 토플(TOEFL) (PBT, CBT, IBT), 텡스(TEPS), 아이엘츠(IELTS) 중 한 가지의 성적을 묻고 있다.³¹⁾ 대졸자의 영어시험 응시 비중과 성적을 보여주는 표에서 보듯, 대졸자 4명 중 1명이 영어시험을 본 경험이 있으며, 평균 성적은 76% 정도이다.³²⁾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영어시험에 응시한 비중이 다소 높고, 성적 역시 미미하나 다소 높다.

대학유형별 영어시험 응시 비중은 교육대학에서 44%로 매우 높은 반면 전문대학에서는 6%로 매우 낮다. 전공별로는 인문계열에서 35%로 높은 반면 의학계열이나 예체능계열에서는 15%와 10%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그 외 전공에서는 21~28%로 전공별 차이가 있다. 영어시험의 성적을 대학유형별로 보면, 일반대학에서 77%에 이르는 반면 전문대학에서는 63%로 약 14%포인트의 차이가 있다. 전공별로는 인문계열에서 79%로 높은 반면 예체능계열과 의학계열에서 7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그 외 전공에서는 74~78%로 차이가 크지는 않다.

31) 설문항은 '최근 2년(2008년 9월 1일~2010년 8월 31일) 이내에 공식기관을 통해서 영어시험을 본적이 있습니까?'와 '최근 2년(2008년 9월 1일~2010년 8월 31일) 이내에 공식기관을 통해서 취득한 가장 좋은 영어점수는 몇 점입니까?'이다. 공식 영어시험을 본 표본의 대부분은 토익시험을 본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JPT 또는 JLPT)와 중국어(HSK 또는 CPT) 및 그 외 외국어는 성적 또는 수준의 표준화가 충분하지 않으며 일부 일자리에서만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32) 영어성적은 본 연구에 포함된 표본의 각 영어시험별 최고 점수 대비 해당 표본의 성적의 비율로 정의한다.

2. 취업사교육 :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증

가. 직업교육훈련

『대졸자조사』에서는 대학 입학 후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³³⁾ 먼저 참여 경험 여부를 파악한 후, 교육훈련의 분야, 기간(달력상 시점과 종점, 재학 중또는 졸업 후, 취업 이전 또는 이후), 총 이수시간, 비용부담 주체, 총비용과 본인부담 비용 등을 파악하고 있다. 취업사교육이 첫 일자리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중 취업 이전에 참여한 직업교육훈련만을 고려한다.

대졸자의 취업 이전 직업교육훈련 참여 실태를 보면, 전체 대졸자 중 7.3%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남성보다 여성에서 다소 비중이 높다. 직업교육훈련 이수시간은 평균 222시간인데, 남성에서 247시간으로 여성에서보다 다소 길다.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된 비용은 139만원이나 본인부담은 25만 원으로, 정부 등 제3자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여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일환임을 짐작할 수 있다.³⁴⁾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을 대학유형별로 보면, 교육대학에서 9%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문대학에서 7%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교육대학에서는 여성에서 10.6%로 남성(5.4%)에서보다 월등히 높다.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에서 8%를 상회하는 반면 사범계열과 의학계열에서는 6%를 하회하여, 전공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유형별로 직

33) ‘대학 입학 후 지금까지 직업과 관련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의 설문항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직장을 갖기 위한 취업, 창업 또는 직장에서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으로 정의하고, ‘취업 또는 능력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3개까지의) 훈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직장 연수, 학원수강 등이 포함되며, 통신강좌나 교양강좌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포함’하지만 단순한 취미활동(꽃꽂이 등),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과 학점 인정되는 교과목, 정규학교교육의 학업과 관련된 학원 수강 및 과외, 고시, 공무원, 공사(공단) 등의 시험준비와 인턴은 제외하고 있다.

34) 이러한 배경으로 판단컨대, 직업교육훈련 참여가 첫 일자리 취업확률이나 임금수준에 부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프로그램 자체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참여한 자들의 고용가능성이 낮으며 프로그램 참여만으로는 취업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교육훈련 이수시간에서 거의 차이가 없으나 전공계열별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공학계열에서는 310시간에 이르는 반면 이학계열에서는 이의 절반에 못 미치는 149시간이다.

직업교육훈련 총비용은 일반대학에서는 153만 원에 이르는 반면 교육대학에서는 68만 원에 불과하며, 전공별로는 예체능계열에서 175만 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사범계열에서는 105만 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비용 중 본인부담은 교육대학에서 35만 원으로 본인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문대학에서 20만 원 미만으로 본인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전공별 본인부담 비용을 보면, 예체능계열에서 4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의학계열에서는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나. 자격증 취득

『대졸자조사』에서는 자격증 취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는 자격증 취득 여부 및 개수, 중요한 자격증 3개까지에 대하여 자격증의 명칭 및 유형, 취득시기, 취득의 주된 목적, 유용성, 비용부담 주체, 취득에 소요된 총비용과 본인부담액, 대학 전공과의 관련성, 취득경로, 준비기간과 실제 준비기간, 상위자격 취득 의사 등이 포함된다.³⁵⁾ 직업교육훈련과 마찬가지로, 취업사교육이 첫 일자리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취업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만을 고려한다.

다음 <표 6>은 취업 이전 자격증 취득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 전체 대졸자 중 60% 이상이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비중은 남성(57%)보다 여성(64%)에서 높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제 준비기간은 약 17개월인데, 남성에서는 14개월인 반면 여성에서는 20개월로 다소 길다. 자격증 취득에 소요된 총 비용은 약 60만 원이지만, 본인부담은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9만 원 정도이다.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총비용은 높은 반면 본인부담은 낮아 본인부담 비중에 성별 차이가

35) 운전면허는 1종 대형 및 특수차량 면허만 포함되고 1종 보통과 2종은 제외. 자격증 유형은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 외국자격으로 구분.

있다.

자격증 취득 비중을 대학유형별로 보면, 교육대학에서 94%로 상당히 높은 반면 일반대학에서는 6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전공계열별로는 사범계열과 의학계열에서 87%와 83%로 월등히 높은 반면 예체능계열에서는 50% 미만이며, 그 외 전공에서는 54~60%의 수준이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제 준비기간은 교육대학에서는 36개월에 이르는 반면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는 16~17개월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전공별로는 사범계열에서 38개월, 의학계열에서 27개월에 이르는 반면 공학계열에서는 10개월을 하회하고, 그 외 전공에서는 13~14개월 정도이다.

자격증 취득에 소요된 총비용은 교육대학에서 67만 원인 반면 전문대학에서는 57만 원으로 다소 차이가 있고, 전공별로는 예체능계열에서 80만 원인 반면 공학계열에서는 45만 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격증 취득 비용 중 본인부담액은 일반대학에서 다소 많고 전문대학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를 전공별로 보면, 예체능계열, 이학계열, 사회계열에서는 20만 원을 넘는 반면 의학계열에서는 12만 원 정도이다.

3. 취업사교육 : 공무원시험과 전문자격시험

『대졸자조사』에서는 ‘대학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시험 준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시험은 크게 공무원시험과 전문자격시험으로 나뉘는데, 전자에는 고시(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공무원시험(7급, 9급, 8급 간호직, 10급 기능직), 교원 임용시험, 공단·공사시험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인, 언론사 시험이 포함된다.

시험 준비 경험이 있는 표본에 대하여, 시험 준비의 주된 동기, 시험 준비 기간, 실제 준비기간, 응시 횟수, 시험 준비 방법, 월평균 소용비용, 최종 합격여부, 현재 계속 준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³⁶⁾

36) 시험 준비 방법에는 학원 수강, TV 방송, 인터넷 강의, 학교 내 특강 수강, 그룹 스터디, 독학 등이 포함된다.

가. 공무원시험

공무원시험 준비 실태를 보여주는 <표 7>을 보면, 대졸자 중 13%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비중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다소 높고, 이들 중 합격 비중은 약 시험 준비 경험자 4명 중 1명꼴에 해당하는 3.6%인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다소 높다. 공무원시험 실제 준비기간은 평균 약 19개월로 남성에서 다소 길고, 월평균 비용은 약 43만원(남성에서는 45만 원, 여성에서는 42만 원)으로 총비용은 약 860만 원에 이른다.³⁷⁾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의 비중은 교원임용시험이 거의 필수인 교육대학에서 87%로 매우 높은 반면 일반대학에서는 17%, 전문대학에서는 5% 미만의 낮은 수준이다. 전공별로는 역시 사범계열에서 절반을 넘는 수준이며, 사회계열과 인문계열이 15%를 전후한 수준인 반면 예체능계열과 의학계열 및 공학계열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시험 합격 비중을 보면, 교육대학에서는 73% 수준으로 준비 경험자의 85% 정도로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다. 일반대학에서는 3.7%로 준비 경험자의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전문대학에서는 0.6%로 준비 경험자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전공별 합격 비중은 사범계열에서 26%로 가장 높고(준비 경험자의 약 절반), 그 외 전공에서는 사회계열에서 2.9%로 가장 높은 반면 예체능계열에서 0.6%로 가장 낮다.

공무원시험 실제 준비기간을 보면, 일반대학에서 19개월로 다소 긴 반면 전문대학에서 16개월로 다소 짧으며, 전공별로는 사회계열과 사범계열에서 20개월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그 외 전공에서는 14~16개월 정도로 차이가 많지는 않다.

공무원시험 준비 비용을 보면, 일반대학에서 월평균 44만 원으로 다소 높은 반면 교육대학과 전문대학에서는 40만 원 정도이다. 전공별로는 예체능계열에서 58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사회계열에서 약 5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이학계열과 공학계열에서 36만 원 정도로 낮은 편이다.

37) 시험 준비 소요비용에는 책값, 학원 수강료, 고시원 비용 등이 포함된다.

나. 전문자격시험

대졸자의 전문자격시험 준비 실태를 보여주는 <표 8>을 보면, 대졸자 중 1.5%가 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비중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다소 높다. 합격 비중은 시험 준비 경험자 3명 중 1명꼴에 해당하는 0.5%인데, 준비 경험자 중 합격 비중은 남성에서는 4.5명 중 1명, 여성에서는 약 3명 중 1명이다. 전문자격시험 준비기간은 평균 약 19개월로 남성에서 20개월로 다소 긴 편이며, 월평균 비용은 약 47만 원(남성에서는 51만 원, 여성에서는 41만 원)으로 공무원시험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자의 비중은 교육대학에서는 전무하며, 일반대학에서 2.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전공별로는 사회계열에서 3.3%로 가장 높고, 인문계열과 이학계열에서 2%를 밑도는 반면 의학계열에서는 거의 전무하다. 전문자격시험 합격 비중을 보면, 일반대학에서는 0.7%로 준비 경험자의 30% 정도의 수준이며, 전문대학에서는 0.1%로 4명 중 1명 정도이다. 전공계열별로는 사범계열에서 거의 100%에 이르는 반면 사회계열과 이학계열에서는 3명 중 1명, 인문계열과 공학계열에서는 약 4명 중 1명이며, 예체능계열에서는 전무하다.

전문자격시험 준비기간은 일반대학에서 20개월에 이르는 반면 전문대학에서는 10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전공별로는 사회계열과 사범계열에서 20개월을 상회하는 반면 예체능계열과 의학계열에서는 10개월 미만으로 상당히 짧다. 전문자격시험 준비 비용을 보면, 일반대학에서 월평균 48만 원을 넘는 반면 전문대학에서는 30만 원 수준이다. 전공별로는 예체능계열에서 68만 원으로 높고, 이학계열에서 약 56만 원에 이르는 반면 공학계열에서는 약 38만 원이다.

〈표 10〉 취업준비(전체)

(단위: 명, %)

	표본	프로그램별 참여 비중						
		1	2	3	4	5	6	7
표본	14,374	27.4	17.0	30.7	23.4	15.3	22.1	8.3
입학연도								
~2001년	2,839	28.2	15.4	31.4	29.4	15.6	22.5	9.7
2002~2004	6,498	27.4	18.1	31.3	25.6	16.0	22.4	8.5
2005~	5,037	26.9	16.5	29.6	18.4	14.5	21.6	7.4
졸업 연령								
23세 미만	3,479	28.1	18.3	31.1	19.5	15.6	22.9	7.9
23~26세	9,007	27.5	17.0	30.8	25.1	15.4	22.1	8.6
27~29세	1,888	25.0	13.7	28.5	24.2	14.2	20.7	7.2
대학 유형								
전문대학	4,642	25.7	16.0	26.9	18.8	14.1	21.8	7.4
일반대학	9,426	28.6	17.5	33.1	26.7	16.2	22.5	9.0
교육대학	306	21.4	22.4	28.5	6.6	9.9	13.3	2.4
대학 소재지								
서울	3,160	27.7	20.7	34.0	32.4	17.2	23.0	7.4
경기권	4,238	28.5	19.5	31.5	23.5	17.8	27.9	9.6
충청권	2,178	26.2	18.0	32.4	23.4	15.3	20.2	7.3
경상권	2,930	29.8	13.8	30.7	21.8	14.4	21.7	9.4
호남권	1,868	20.6	11.9	21.4	13.6	9.4	12.0	5.3
전공계열								
인문	1,442	25.2	16.9	33.6	27.9	19.6	23.5	9.3
사회	3,488	30.2	18.1	31.5	24.1	16.7	24.2	9.1
사범	1,230	27.8	17.2	35.6	14.1	13.1	16.9	5.0
공학	3,774	28.4	17.1	30.0	28.2	15.5	23.7	9.8
이학	1,681	27.6	18.3	32.1	27.0	15.4	23.3	9.5
의학	941	24.9	17.5	29.6	15.3	14.0	20.8	5.5
예체능	1,818	22.6	13.3	25.0	18.2	11.2	17.0	5.8
추가전공								
없음	12,461	26.5	15.9	29.1	22.1	14.3	21.1	7.7
있음	1,913	33.9	25.2	42.1	32.7	22.6	29.6	12.3
대학성적								
90% 이상	2,609	30.1	18.9	33.3	25.0	16.6	23.0	8.7
80% 미만	6,397	29.8	17.9	32.5	25.2	16.8	24.2	9.1
80% 미만	4,488	24.5	15.5	29.1	21.8	13.6	20.7	7.5
무응답	880	15.4	12.0	16.7	13.0	9.4	11.5	4.1
고등학교								
외고/과학고	212	27.7	27.5	29.4	33.2	15.4	23.3	9.0
문과	6,995	28.0	17.3	32.1	23.3	15.5	22.3	8.3
이과	4,648	28.0	17.3	31.6	25.9	15.8	22.3	8.7
그외	2,519	24.6	15.0	25.6	19.0	14.0	21.3	7.6

주: 각 비중은 자료에서 제공된 가중치를 적용.

〈표 11〉 취업준비(남성)

(단위: 명, %)

	표본	프로그램별 참여 비중						
		1	2	3	4	5	6	7
표본	7,624	26.0	15.2	28.0	24.9	14.7	21.3	8.6
입학연도								
~2001년	2,766	28.5	15.5	31.6	29.8	15.7	22.9	10.0
2002~2004	3,680	25.9	15.7	27.0	23.9	14.8	21.6	8.0
2005~	1,178	21.5	12.9	23.8	17.9	12.3	17.1	7.8
졸업 연령								
23세 미만	308	20.6	16.0	27.4	18.8	16.3	17.8	9.7
23~26세	5,658	26.4	15.4	27.8	24.9	14.7	21.4	8.9
27~29세	1,658	26.0	14.2	28.9	26.3	14.5	21.4	7.6
대학 유형								
전문대학	2,333	23.2	14.4	22.9	20.4	12.8	19.6	7.7
일반대학	5,203	27.6	15.6	30.7	27.6	15.8	22.3	9.2
교육대학	88	22.8	16.8	32.7	7.1	10.0	12.7	2.9
대학 소재지								
서울	1,565	26.7	18.2	31.6	35.4	16.1	21.0	7.6
경기권	2,341	26.9	17.8	29.3	27.1	17.6	26.9	10.2
충청권	1,175	25.2	17.2	29.3	23.3	13.9	18.3	8.2
경상권	1,533	28.3	11.6	28.5	22.5	14.3	22.0	9.1
호남권	1,010	19.5	10.9	18.1	14.4	8.6	12.4	6.2
전공계열								
인문	527	24.0	13.5	30.6	28.7	20.5	22.6	10.9
사회	1,782	28.3	14.9	28.6	25.8	16.1	22.7	8.9
사범	324	26.3	12.5	31.3	10.9	13.6	18.0	4.7
공학	3,125	27.3	16.4	29.0	28.4	14.8	22.8	9.4
이학	790	23.1	16.3	26.6	24.7	12.6	18.9	8.9
의학	342	23.2	15.1	27.1	15.8	13.9	18.7	8.6
예체능	734	20.9	12.1	21.7	17.1	9.9	15.7	5.1
추가전공								
없음	6,814	25.2	14.4	26.8	23.7	13.7	20.3	8.0
있음	810	34.1	22.4	39.1	36.4	24.3	30.7	14.5
대학성적								
90% 이상	1,128	28.7	16.3	28.2	26.6	14.8	20.9	8.3
80% 미만	3,245	28.8	16.1	30.6	27.5	16.2	23.6	9.9
80% 미만	2,804	23.6	14.5	27.3	23.0	13.6	20.2	8.1
무응답	447	13.9	9.1	13.0	13.8	10.4	12.4	4.0
고등학교								
외고/과학고	105	28.0	25.3	25.7	37.5	15.2	22.8	12.4
문과	3,092	26.5	14.8	29.4	25.2	15.4	21.3	8.3
이과	3,069	27.1	15.9	29.7	27.5	15.5	22.5	9.7
그외	1,358	22.8	13.8	22.2	18.6	11.7	18.7	7.2

주: 각 비중은 자료에서 제공된 가중치를 적용.

〈표 12〉 취업준비(여성)

(단위: 명, %)

	표본	프로그램별 참여 비중						
		1	2	3	4	5	6	7
표본	6,750	28.6	18.7	33.2	22.0	15.9	22.9	7.9
입학연도								
~2001년	73	16.9	11.9	24.1	15.6	10.5	10.3	1.1
2002~2004	2,818	29.4	21.1	36.7	27.7	17.4	23.5	9.0
2005~	3,859	28.3	17.4	31.2	18.6	15.1	22.8	7.3
졸업 연령								
23세 미만	3,171	28.7	18.5	31.5	19.6	15.5	23.3	7.7
23~26세	3,349	29.2	19.6	35.6	25.4	16.7	23.0	8.3
27~29세	230	19.6	10.8	26.8	12.1	12.5	16.2	4.8
대학 유형								
전문대학	2,309	27.6	17.3	30.0	17.6	15.2	23.5	7.1
일반대학	4,223	29.6	19.5	35.7	25.8	16.7	22.8	8.7
교육대학	218	20.8	24.6	26.8	6.4	9.9	13.5	2.2
대학 소재지								
서울	1,595	28.4	22.7	35.9	30.1	18.1	24.6	7.3
경기권	1,897	30.1	21.2	33.7	20.0	17.9	28.9	9.0
충청권	1,003	27.2	18.8	35.7	23.4	16.7	22.0	6.4
경상권	1,397	31.2	15.9	32.9	21.1	14.4	21.4	9.7
호남권	858	21.7	12.9	24.8	12.7	10.3	11.6	4.4
전공계열								
인문	915	25.7	18.5	35.0	27.5	19.1	23.9	8.5
사회	1,706	31.9	20.9	34.1	22.5	17.3	25.5	9.3
사범	906	28.2	18.6	36.9	15.1	13.0	16.6	5.1
공학	649	33.1	20.1	34.1	27.2	18.7	27.8	11.7
이학	891	31.1	19.8	36.2	28.7	17.4	26.7	9.9
의학	599	25.7	18.5	30.6	15.1	14.0	21.7	4.2
예체능	1,084	23.7	14.1	26.9	18.9	12.0	17.7	6.2
추가전공								
없음	5,647	27.8	17.3	31.4	20.6	15.0	21.9	7.4
있음	1,103	33.8	27.0	44.0	30.3	21.5	28.9	10.9
대학성적								
90% 이상	1,481	31.0	20.5	36.6	23.9	17.8	24.3	9.0
80% 미만	3,152	30.6	19.4	34.2	23.3	17.3	24.8	8.4
80% 미만	1,684	25.7	16.9	31.5	20.3	13.6	21.3	6.8
무응답	433	16.8	14.4	19.9	12.2	8.4	10.8	4.1
고등학교								
외고/과학고	107	27.5	29.5	32.8	29.3	15.6	23.8	5.9
문과	3,903	29.1	19.1	34.0	22.1	15.6	23.0	8.3
이과	1,579	29.4	19.5	34.8	23.3	16.4	22.0	7.0
그외	1,161	26.4	16.1	28.9	19.4	16.3	23.8	8.0

주: 각 비중은 자료에서 제공된 가중치를 적용.

〈표 13〉 취업준비 : 시험 등(전체)

(단위 : 명, %)

	표본	스펙		영어관련		시험준비		
		직업교육 훈련: 언어 이외	자격증 (취업 전)	어학 연수	직업교육 훈련: 언어분야	영어시 험	공무원 시험	전문자 격시험
표본	7,624	12.3	60.9	15.2	1.0	24.3	13.1	14.5
입학연도								
~2001년	2,766	13.2	53.9	28.2	1.1	41.1	16.5	19.6
2002~2004	3,680	12.4	58.2	19.3	1.2	29.0	13.7	15.6
2005~	1,178	11.8	66.8	5.1	0.7	12.1	10.9	11.3
졸업 연령								
23세 미만	308	12.3	67.2	5.8	0.6	12.1	10.8	11.2
23~26세	5,658	12.3	59.0	18.2	1.2	28.3	12.9	14.6
27~29세	1,658	12.5	55.2	22.1	0.9	33.5	19.3	22.3
대학 유형								
전문대학	2,333	11.6	63.1	4.9	0.5	6.1	4.1	4.5
일반대학	5,203	12.4	58.7	21.8	1.3	35.3	16.8	19.1
교육대학	88	23.3	94.4	10.0	1.5	44.0	87.1	87.1
대학 소재지								
서울	1,565	13.0	53.4	25.5	1.8	41.3	14.2	18.3
경기권	2,341	14.8	60.2	14.7	1.2	21.4	9.1	10.6
충청권	1,175	10.9	61.7	13.1	0.5	23.5	13.9	14.4
경상권	1,533	11.4	62.1	12.6	0.8	21.6	14.0	14.8
호남권	1,010	9.7	69.6	9.5	0.4	12.9	16.5	17.2
전공계열								
인문	527	9.5	54.0	35.4	1.9	34.6	13.2	15.1
사회	1,782	12.8	59.5	16.7	1.0	28.3	15.8	19.0
사범	324	13.1	86.6	8.3	0.9	20.8	51.4	51.6
공학	3,125	14.7	57.2	15.2	0.8	27.7	7.1	7.9
이학	790	10.3	60.1	14.3	1.4	25.5	10.5	12.3
의학	342	11.5	83.2	5.2	0.5	15.1	5.9	5.9
예체능	734	10.8	47.4	8.5	0.7	10.2	3.2	3.6
추가전공								
없음	6,814	11.8	60.0	13.2	0.8	22.2	11.7	12.9
있음	810	16.1	67.7	29.6	2.1	40.0	22.8	26.4
대학성적								
90% 이상	1,128	13.1	66.3	15.3	1.1	24.5	14.9	15.8
80% 미만	3,245	13.0	62.8	15.8	1.0	26.2	13.7	15.1
80% 미만	2,804	11.9	56.6	15.1	1.0	24.3	12.1	14.3
무응답	447	7.1	51.2	10.2	0.2	10.6	7.0	7.7
고등학교								
외고/과학고	105	14.9	56.7	23.1	2.7	50.3	23.7	28.7
문과	3,092	11.7	57.9	17.4	1.0	26.2	16.2	18.0
이과	3,069	14.1	61.0	16.9	1.2	31.8	12.9	14.3
그외	1,358	10.9	68.6	6.2	0.4	6.2	4.6	5.1

주: 각 비중은 자료에서 제공된 가중치를 적용.

〈표 14〉 취업준비 : 시험준비 등(남성)

(단위: 명, %)

	표본	스펙		영어관련		시험준비		
		직업교육 훈련: 언어 이외	자격증 (취업 전)	어학 연수	직업교육 훈련: 언어분야	영어 시험	공무원 시험	전문자 격시험
표본	7,624	12.2	57.3	15.0	0.8	25.8	12.3	14.1
입학연도								
~2001년	2,766	13.5	54.2	28.5	1.1	41.2	16.1	19.4
2002~2004	3,680	11.8	58.4	9.5	0.6	20.5	10.8	11.9
2005~	1,178	10.6	60.5	3.6	0.7	10.1	9.3	9.7
졸업 연령								
23세 미만	308	13.3	61.2	3.3	0.3	10.2	10.3	10.6
23~26세	5,658	11.9	58.3	13.1	0.7	23.8	10.5	11.8
27~29세	1,658	12.8	53.1	24.0	0.9	36.2	19.4	22.9
대학 유형								
전문대학	2,333	11.2	57.4	4.6	0.4	5.4	4.5	5.0
일반대학	5,203	12.6	56.7	20.6	1.0	36.3	15.4	17.9
교육대학	88	20.0	92.6	5.5	0.0	48.5	89.2	89.2
대학 소재지								
서울	1,565	12.1	50.2	24.5	1.3	44.4	13.9	18.7
경기권	2,341	14.7	56.7	14.6	0.9	23.4	8.5	10.2
충청권	1,175	9.7	56.1	12.7	0.5	24.3	12.3	13.2
경상권	1,533	12.3	59.1	13.8	0.8	23.2	13.4	14.4
호남권	1,010	9.9	65.1	9.3	0.2	14.9	16.0	17.0
전공계열								
인문	527	9.7	47.8	30.4	1.1	34.2	12.6	13.9
사회	1,782	11.7	55.0	17.5	0.8	31.2	17.3	21.5
사범	324	10.0	83.1	7.5	0.5	24.1	68.9	69.4
공학	3,125	14.3	57.8	15.0	0.7	27.1	7.2	7.9
이학	790	9.6	57.4	13.4	0.5	24.2	9.9	11.7
의학	342	9.8	78.9	6.6	1.2	17.4	7.6	7.8
예체능	734	11.4	47.6	7.3	0.7	8.5	4.8	5.3
추가전공								
없음	6,814	11.5	56.2	13.6	0.7	24.1	11.5	13.1
있음	810	18.3	67.4	27.5	1.5	41.3	19.9	23.6
대학성적								
90% 이상	1,128	11.7	60.6	14.0	0.5	25.9	12.7	13.7
80% 미만	3,245	12.9	59.7	16.4	0.9	28.0	12.8	14.3
80% 미만	2,804	12.4	55.3	14.2	0.7	25.4	12.6	15.1
무응답	447	6.6	43.8	11.2	0.3	12.0	6.6	7.6
고등학교								
외교/과학고	105	9.7	52.2	20.3	0.6	46.2	13.9	18.9
문과	3,092	10.9	52.7	16.2	0.7	28.1	16.7	19.2
이과	3,069	14.0	57.8	18.3	1.0	32.6	11.4	12.8
그외	1,358	11.4	66.5	5.5	0.3	6.4	4.9	5.5

주: 각 비중은 자료에서 제공된 가중치를 적용.

〈표 15〉 취업준비 : 시험준비 등(여성)

(단위: 명, %)

	표본	스펙		영어관련		시험준비		
		직업교육 훈련: 언어 이외	자격증 (취업 전)	어학 연수	직업교육 훈련: 언어분야	영어 시험	공무원 시험	전문자 격시험
표본	6,750	12.4	64.3	15.3	1.2	22.9	13.7	15.0
입학연도								
~2001년	73	4.0	43.8	20.7	1.2	35.8	27.1	28.2
2002~2004	2,818	13.2	58.1	31.5	2.0	39.5	17.4	20.1
2005~	3,859	12.1	68.4	5.5	0.7	12.6	11.3	11.7
졸업 연령								
23세 미만	3,171	12.2	67.7	6.0	0.6	12.2	10.9	11.3
23~26세	3,349	12.8	60.3	26.1	1.8	35.2	16.5	18.8
27~29세	230	10.6	67.3	11.1	0.8	17.7	18.8	19.0
대학 유형								
전문대학	2,309	12.0	67.6	5.2	0.5	6.6	3.8	4.1
일반대학	4,223	12.3	60.7	23.0	1.6	34.2	18.3	20.3
교육대학	218	24.7	95.1	11.7	2.0	42.3	86.2	86.2
대학 소재지								
서울	1,595	13.7	55.9	26.3	2.2	38.8	14.4	18.0
경기권	1,897	14.9	63.6	14.7	1.5	19.4	9.7	10.9
충청권	1,003	12.2	67.3	13.5	0.5	22.8	15.4	15.6
경상권	1,397	10.5	65.0	11.4	0.8	20.0	14.6	15.2
호남권	858	9.4	74.2	9.7	0.5	10.8	17.0	17.5
전공계열								
인문	915	9.4	57.0	37.8	2.3	34.7	13.6	15.7
사회	1,706	13.7	63.4	16.1	1.2	25.7	14.5	16.8
사범	906	14.0	87.7	8.5	1.0	19.8	46.2	46.4
공학	649	16.6	55.0	16.1	1.0	30.2	6.6	7.6
이학	891	10.9	62.1	15.0	2.0	26.5	10.9	12.7
의학	599	12.3	85.0	4.6	0.2	14.2	5.1	5.1
예체능	1,084	10.4	47.2	9.2	0.7	11.2	2.2	2.6
추가전공								
없음	5,647	12.1	63.7	12.8	1.0	20.2	11.9	12.8
있음	1,103	14.6	67.8	31.0	2.5	39.2	24.6	28.1
대학성적								
90% 이상	1,481	14.0	69.9	16.1	1.5	23.5	16.3	17.2
80% 미만	3,152	13.0	65.6	15.3	1.1	24.6	14.6	15.8
80% 미만	1,684	11.2	58.4	16.3	1.3	22.8	11.4	13.3
무응답	433	7.6	57.4	9.3	0.2	9.5	7.4	7.8
고등학교								
외고/과학고	107	19.6	60.8	25.7	4.6	54.0	32.5	37.5
문과	3,903	12.2	61.5	18.1	1.2	24.9	15.8	17.2
이과	1,579	14.2	66.3	14.8	1.6	30.5	15.4	16.6
그외	1,161	10.3	70.7	7.0	0.4	6.0	4.4	4.8

주: 각 비중은 자료에서 제공된 가중치를 적용.

제2절 취업교육투자와 첫 일자리

취업사교육 각각이 첫 일자리 취업과 임금수준에 긍정적 효과를 가질까? 취업사교육이 적절한 투자라면, 두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9>는 이러한 예상에 대한 실제 사실을 보여준다.

분석대상인 14,401명 중 조사기준일까지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취득한 경험이 있는 표본은 12,797명으로 가중치를 고려한 비중은 88.4%이며 취업 비중에서 성별 차이는 거의 없지만 첫 일자리에에서의 시간당 임금은 약 8천 7백 원으로 남성(9천 5백 원을 상회)에서 여성(8천 원 하회)에서보다 높다.³⁸⁾

어학연수 경험 여부와 첫 일자리 취업은, 표에서 보듯,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러한 관계는 여성에서보다 남성에서 다소 강하다. 첫 일자리에에서의 시간당 임금 역시 경험자에서는 1만 원을 다소 상회하는 한편 무경험자에서는 8천 4백 원 정도로 16% 낮은 편이며, 이러한 임금 격차는 여성(1천 5백 원)보다는 남성(2천 1백 원)에서 크다.

취업 전 직업교육훈련 참여 경험은 취업 비중을 약 1.5%포인트 상승시키는데 이러한 효과에서 성별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 참여 경험은 임금 수준에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갖는데, 경험자의 시간당 임금은 8천 1백 원 정도로 무경험자보다 오히려 6백 원 정도 적고, 이러한 임금 격차는 여성(2백 원)보다는 남성(9백 원 정도)에서 더 크다.

취업 전 자격증 취득은 첫 일자리 취업에는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만 첫 일자리에에서의 임금 수준에는 부정적 효과를 가진다. 자격증 취득자의

38) 첫 일자리를 취득할 당시의 임금은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료상 한계가 존재한다. 대졸자조사에서는 첫 일자리가 조사기준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즉, 현재 일자리가 첫 일자리이면 통상 주당 정규 및 초과 근로시간과 월평균 근로소득 및 급여형태를 조사시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첫 일자리가 현재까지 지속되지 않는 경우 첫 일자리를 그만두기 전 3개월(3개월 미만 일하였으면 실제 근무기간)의 평균값을 파악하고 있어 양자간 차이가 존재한다.

취업 비중은 91%로 미취득자에 비해 6%포인트 가까이 높은 편이지만 자격증 취득자의 시간당 임금은 8천 5백 원으로 미취득자보다 5백 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취업 비중의 격차는 남성(4%포인트)보다는 여성(약 8%포인트)에서 더 크고, 임금 수준의 격차 역시 남성(4백 원)보다는 여성(1천 3백 원)에서 더 크다.

공무원시험이나 전문자격 시험 모두, 예상했던 대로, 취업에는 부정적 효과를 가진다. 공무원시험 준비자의 취업 비중은 75%로 그렇지 않은 대졸자 비해 약 16%포인트 낮고, 전문자격 시험에서는 취업 비중의 격차가 9%포인트로 다소 작은 편이다. 시험준비자를 시험합격 여부로 나누어 보면,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취업 비중은 93%로 불합격자보다 25%포인트 가까이 높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대졸자보다도 다소 높다. 전문자격시험 합격자 역시 취업 비중이 91%로 불합격자에 비해 15%포인트나 높고,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대졸자보다 높다.

취업과는 반대로, 시험 준비는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 않지만, 이러한 효과는 시험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는 그렇지 않은 대졸자에 비해 약 1백 원 높은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받지만, 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자는 그렇지 않은 대졸자에 비해 약 2천 8백 원 높은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다. 이를 시험합격 여부로 보면, 차이는 더 커진다. 공무원시험 합격자와 불합격자 간 임금격차는 1천 7백 원에 이르며, 전문자격시험 합격자와 불합격자 간 임금격차는 5천 1백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시험합격 여부에 따른 격차는 공무원시험에서는 남성(약 1천 원)보다 여성(2천 3백 원)에서 더 큰 반면 전문자격 시험에서는 남녀 모두 5천 원 정도로 성별 차이가 거의 없다. 일단 시험 준비를 시작하면 합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취업준비와 첫 일자리(전체)

(단위: 명, %, 월, 원/시간)

	표본	비중	취업률	경과 기간	시간당 임금	만족도
표본	14,374	100.0	88.4	8.0	8,724	3.38
재학 중 취업준비 프로그램	6,343	44.2	86.7	8.5	8,739	3.39
프로그램 (1개 이상) 참여	8,031	55.8	89.8	7.6	8,713	3.37
진로취업교과목	3,894	27.4	90.3	7.4	8,688	3.35
직장체험프로그램	2,465	17.0	93.6	7.0	8,726	3.38
직업심리검사	4,430	30.7	90.4	7.6	8,837	3.38
교내취업박람회	3,470	23.4	90.2	7.6	9,254	3.41
상담프로그램	2,222	15.3	91.2	7.3	8,833	3.40
면접이력서프로그램	3,174	22.1	91.5	7.1	8,726	3.35
취업캠프	1,194	8.3	92.5	7.0	8,687	3.35
직업교육훈련 참여 안함	12,410	86.7	87.6	8.2	8,698	3.39
참여	1,808	12.3	93.8	7.1	8,903	3.34
언어 분야 제외	1,808	12.3	93.8	7.1	8,903	3.34
언어 분야	156	1.0	93.5	6.2	8,688	3.28
자격증 없었음 (취업 전)	5,776	39.1	84.9	8.9	9,055	3.37
있었음	8,598	60.9	90.7	7.5	8,526	3.38
어학연수 경험 없음	12,032	84.8	87.8	8.1	8,444	3.37
있음	2,342	15.2	91.8	7.7	10,226	3.43
영어시험 경험 없음	10,565	75.7	88.6	7.8	8,307	3.36
있음	3,809	24.3	88.0	8.5	10,033	3.44
시험준비 경험 없음	12,064	85.3	90.7	7.5	8,668	3.36
있음	2,310	14.7	75.1	10.8	9,116	3.48
공무원시험 준비	2,050	13.1	74.6	10.9	8,827	3.50
합격 경험	610	3.6	92.7	7.3	9,942	3.91
전문자격시험 준비	2,291	14.5	75.1	10.8	9,116	3.48
합격 경험	679	4.0	92.4	7.5	10,477	3.88
구직 목표 없었음	6,815	48.8	86.3	8.4	8,521	3.38
있었음	7,559	51.2	90.5	7.6	8,909	3.38
구직활동 경험 없음	8,048	57.5	85.5	8.5	8,847	3.45
있음	6,326	42.5	92.3	7.3	8,571	3.29
지원 경험 있음	6,201	41.7	92.9	7.2	8,589	3.29
없음	125	0.8	62.6	11.3	7,203	3.39
인터뷰 경험 있음	5,951	40.1	93.5	7.1	8,634	3.29
없음	255	1.7	78.8	10.3	7,251	3.24
일자리 제의 받음	5,025	33.8	95.8	6.5	8,715	3.29
받지 못함	949	6.4	81.5	9.7	8,084	3.30
제의 거절 경험 있음	2,808	18.7	94.0	7.2	8,803	3.25
없음	2,217	15.1	98.0	5.7	8,611	3.33

〈표 17〉 취업준비와 첫 일자리(남성)

(단위: 명, %, 월, 원/시간)

	표본	비중	취업률	경과 기간	시간당 임금	만족도
표본	7,624	48.6	89.0	8.3	9,545	3.42
재학 중 취업준비 프로그램	3,538	22.8	87.6	8.8	9,502	3.43
프로그램 (1개 이상) 참여	4,086	25.8	90.3	7.9	9,582	3.40
진로취업교과목	1,978	12.6	90.0	7.8	9,644	3.39
직장체험프로그램	1,193	7.4	93.7	7.4	9,745	3.45
직업심리검사	2,171	13.6	91.2	7.9	9,825	3.44
교내취업박람회	1,966	12.1	91.3	7.7	10,024	3.46
상담프로그램	1,145	7.1	90.8	7.8	9,765	3.44
면접이력서프로그램	1,641	10.3	91.6	7.4	9,549	3.39
취업캠프	668	4.2	92.1	7.5	9,514	3.39
직업교육훈련 참여 안함	6,616	42.3	88.2	8.4	9,521	3.42
참여	947	5.9	94.3	7.7	9,710	3.37
언어 분야 제외	947	5.9	94.3	7.7	9,710	3.37
언어 분야	61	0.4	93.3	6.5	9,460	3.43
자격증 없었음 (취업 전)	3,302	20.7	86.6	8.9	9,787	3.42
있었음	4,322	27.8	90.8	7.9	9,374	3.42
어학연수 경험 없음	6,415	41.3	88.2	8.5	9,221	3.40
있음	1,209	7.3	93.8	7.2	11,280	3.52
영어시험 경험 없음	5,516	36.0	89.1	8.3	9,077	3.38
있음	2,108	12.5	88.8	8.5	10,898	3.53
시험준비 경험 없음	6,492	41.7	91.6	7.8	9,524	3.41
있음	1,132	6.9	73.5	11.4	9,704	3.46
공무원시험 준비	975	6.0	72.4	11.6	9,288	3.46
합격 경험	249	1.5	93.8	8.2	9,961	3.83
전문자격시험 준비	1,120	6.8	73.3	11.5	9,705	3.46
합격 경험	291	1.7	93.6	8.2	10,806	3.80
구직 목표 없었음	3,636	23.8	86.8	8.7	9,297	3.41
있었음	3,988	24.7	91.1	7.9	9,774	3.42
구직활동 경험 없음	4,273	28.0	86.7	8.8	9,629	3.48
있음	3,351	20.6	92.2	7.6	9,438	3.33
지원 경험 있음	3,292	20.2	92.5	7.6	9,456	3.33
없음	59	0.3	70.9	9.8	8,009	3.56
인터뷰 경험 있음	3,158	19.4	93.1	7.5	9,526	3.33
없음	137	0.9	79.9	9.8	7,548	3.26
일자리 제의 받음	2,647	16.2	95.7	6.8	9,656	3.35
받지 못함	520	3.2	80.2	10.4	8,706	3.24
제의 거절 경험 있음	1,506	9.1	93.7	7.3	9,866	3.32
없음	1,141	7.1	98.3	6.0	9,401	3.38

〈표 18〉 취업준비와 첫 일자리(여성)

(단위: 명, %, 월, 원/시간)

	표본	비중	취업률	경과 기간	시간당 임금	만족도
표본	6,750	51.4	87.9	7.7	7,939	3.34
재학 중 취업준비 프로그램	2,805	21.5	85.9	8.2	7,913	3.34
프로그램 (1개 이상) 참여	3,945	30.0	89.3	7.4	7,956	3.34
진로취업교과목	1,916	14.7	90.5	7.1	7,871	3.32
직장체험프로그램	1,272	9.6	93.4	6.7	7,944	3.33
직업심리검사	2,259	17.1	89.8	7.3	8,035	3.33
교내취업박람회	1,504	11.3	89.0	7.6	8,406	3.36
상담프로그램	1,077	8.2	91.5	6.9	8,025	3.36
면접이력서프로그램	1,533	11.8	91.3	6.9	8,000	3.32
취업캠프	526	4.1	92.9	6.4	7,840	3.31
직업교육훈련 참여 안함	5,794	44.4	87.0	7.9	7,903	3.35
참여	861	6.4	93.3	6.6	8,146	3.31
언어 분야 제외	861	6.4	93.3	6.6	8,146	3.31
언어 분야	95	0.6	93.6	6.1	8,223	3.19
자격증 없었음 (취업 전)	2,474	18.4	83.0	8.9	8,192	3.32
있었음	4,276	33.1	90.6	7.1	7,810	3.35
어학연수 경험 없음	5,617	43.5	87.5	7.7	7,700	3.34
있음	1,133	7.9	90.1	8.1	9,215	3.35
영어시험 경험 없음	5,049	39.6	88.1	7.5	7,598	3.34
있음	1,701	11.8	87.1	8.6	9,097	3.35
시험준비 경험 없음	5,572	43.7	89.9	7.2	7,837	3.32
있음	1,178	7.8	76.6	10.3	8,613	3.50
공무원시험 준비	1,075	7.1	76.5	10.3	8,456	3.53
합격 경험	361	2.1	92.0	6.8	9,929	3.96
전문자격시험 준비	1,171	7.7	76.6	10.3	8,615	3.51
합격 경험	388	2.3	91.6	7.0	10,220	3.93
구직 목표 없었음	3,179	24.9	85.8	8.1	7,769	3.34
있었음	3,571	26.5	89.8	7.4	8,091	3.35
구직활동 경험 없음	3,775	29.5	84.5	8.3	8,084	3.42
있음	2,975	21.9	92.5	7.0	7,760	3.25
지원 경험 있음	2,909	21.5	93.3	6.9	7,777	3.25
없음	66	0.5	56.9	12.2	6,508	3.23
인터뷰 경험 있음	2,793	20.7	93.9	6.7	7,804	3.25
없음	118	0.8	77.7	10.8	6,929	3.23
일자리 제의 받음	2,378	17.6	95.9	6.3	7,847	3.23
받지 못함	429	3.2	82.8	9.0	7,475	3.35
제의 거절 경험 있음	1,302	9.6	94.3	7.0	7,801	3.19
없음	1,076	8.0	97.7	5.5	7,900	3.29

제3절 첫 일자리 취업 결정요인: 취업교육투자의 효과

1. 방법론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취득 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표본과 성별 표본에 대하여 프로빗모형을 적용하여 추정을 실시한다. 모형에 포함될 설명변수로는 성, 대학 졸업 당시 연령, 대학 유형(4년제 일반대학 기준, 2~3년제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에서의 전공(인문계열 기준; 사회계열, 사범계열, 공학계열, 이학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이수 여부, 대학소재지(서울 기준: 경기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대학에서의 (로그) 평점(만점 대비 비율), 특수한 경험(대학 재수, 휴학 경험, 재학 중 일자리 경험) 여부를 포함한다.

취업교육투자와 관련된 변수로는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또는 취업에 관해 학점 인정되는 교과목 수강’ 등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진로, 취업에 관해 학점 인정되는 교과목, 지장체험 프로그램(인턴 포함),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교내 취업박람회, 진로관련 개인 및 집단 상담프로그램,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취업캠프 등 7개) 참여 여부, 직업교육훈련(어학 분야 제외)참여 여부, 첫 일자리 취업 이전 자격증 보유 여부, 시험 준비(공무원 시험 준비와 합격 여부, 전문자격사 시험 준비와 합격 여부), 영어 관련(외국 어학연수 참여 여부, 직업교육훈련(어학분야) 참여 여부, (로그) 영어성적) 등이 포함된다.

이에 추가하여 구직관련 변수들이 포함되는데, 이에는 졸업 전 구직목표 설정 여부, 구직활동 여부, 응시원서 제출 여부, 인터뷰 여부, 일자리 제의 여부, 일자리 제의 거절 여부가 포함된다.

2. 추정결과

가. 변수집단에 대한 가설검정

다음 표는 첫 일자리 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각 변수의 집단별로 모형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한 가설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체 표본에서는 11개 변수집단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성 표본에서는 대학 유형, 복수(부, 연계) 전공, 대학 성과와 특수경험의 변수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에서는 영어관련 변수집단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취업여부 추정결과

	전체	남성	여성
상수	-0.5407 (.6790)	-0.9742 (.929)	-0.3895 (1.010)
여성	-0.0942 (.0436)**		
연령(대학졸업당시)	0.0101 (.0119)	0.0453 (.0171)***	-0.0263 (.0169)
1. 대학유형(4년제 기준)			
전문대학	-0.0223 (.0428)	-0.0087 (.0605)	-0.0313 (.0617)
교육대학	0.3543 (.1365)***	0.2112 (.2313)	0.4842 (.1750)***
2. 대학 전공(인문계열)			
사회계열	0.0135 (.0553)	0.0921 (.0857)	-0.0341 (.0738)
사범계열	0.0256 (.0743)	0.1057 (.1337)	-0.0130 (.0917)
공학계열	0.1864 (.0590)***	0.2750 (.0843)***	0.1083 (.0956)
이학계열	0.0081 (.0628)	0.1363 (.0978)	-0.0750 (.0829)
의학계열	0.4633 (.0892)***	0.5584 (.1470)***	0.4371 (.1136)***
예체능계열	-0.0232 (.0623)	0.1027 (.1008)	-0.0811 (.0804)
3. 복수, 부, 연계전공			
복수전공	0.2963 (.1330)**	0.2594 (.2004)	0.3158 (.1806)*
부전공	0.2598 (.1267)**	0.0785 (.1930)	0.3816 (.1706)**
연계전공	-0.1186 (.1235)	-0.0449 (.1886)	-0.1401 (.1658)
4. 대학 소재지 (서울)			
경기권	0.0158 (.0467)	0.0359 (.0666)	-0.0086 (.0667)
충청권	-0.2166 (.0514)***	-0.2163 (.0721)***	-0.2061 (.0748)***
영남권	-0.1572 (.0479)***	-0.1313 (.0692)*	-0.1903 (.0676)***
호남권	-0.1603 (.0548)***	-0.1430 (.0769)*	-0.1719 (.0791)**

〈표 19〉 취업여부 추정결과(계속)

	전체	남성	여성
5. 대학 성적			
로그(성적)	0.3205 (.1378)**	0.2170 (.1847)	0.4492 (.2113)**
성적무응답	1.3242 (.6091)**	0.8224 (.8141)	1.9181 (.9363)**
6. 특수 경험 (없음)			
대학 재수	-0.1413 (.0390)***	-0.1126 (.0521)**	-0.1708 (.0608)***
휴학 경험	-0.0232 (.0413)	-0.0991 (.0715)	0.0761 (.0552)
재학중 일자리경험	0.0030 (.0315)	0.0336 (.0440)	-0.0301 (.0455)
7. 취업 준비 (없음)			
진로취업교과목	-0.0237 (.0392)	-0.0941 (.0555)*	0.0567 (.0559)
직장체험프로그램	0.2279 (.0495)***	0.2402 (.0728)***	0.2063 (.0685)***
직업심리검사	0.0366 (.0391)	0.0744 (.0572)	0.0020 (.0540)
교내취업박람회	0.0208 (.0419)	0.0619 (.0593)	-0.0069 (.0604)
상담프로그램	-0.0022 (.0522)	-0.0582 (.0745)	0.0688 (.0745)
면접이력서프로그램	0.0401 (.0472)	0.0563 (.0683)	0.0115 (.0665)
취업캠프	0.0555 (.0675)	-0.0380 (.0920)	0.1744 (.1015)*
8. 스펙			
교육훈련(어학분야 제외)	0.1796 (.0551)***	0.1730 (.0779)**	0.1888 (.0789)**
자격증(취업이전)	0.2248 (.0319)***	0.1596 (.0443)***	0.2967 (.0465)***
9. 시험 준비			
공무원시험 합격	0.2248 (.2407)	0.0421 (.3367)	0.5007 (.3528)
공무원시험 불합격	-0.2164 (.1184)*	-0.3122 (.1553)**	-0.0416 (.1847)
전문자격시험 합격	-0.1545 (.2253)	0.0186 (.3125)	-0.4297 (.3329)
전문자격시험 불합격	-0.6991 (.1144)***	-0.6925 (.1496)***	-0.7930 (.1791)***
10. 영어 관련			
어학연수	0.1541 (.0479)***	0.2406 (.0709)***	0.0445 (.0669)
교육훈련(어학분야)	0.3031 (.1830)*	0.1390 (.2985)	0.3616 (.2339)
로그(영어성적)	-0.0326 (.0090)***	-0.0370 (.0126)***	-0.0287 (.0130)**
영어성적 무응답	-0.2254 (.1832)	-0.2174 (.2220)	-0.1145 (.3479)
11. 구직과정			
직업목표	0.1359 (.0323)***	0.1788 (.0453)***	0.0835 (.0466)*
응시안함	-0.8693 (.1197)***	-0.7202 (.1804)***	-0.9721 (.1628)***
인터뷰안함	-0.3201 (.0950)***	-0.3439 (.1315)***	-0.2840 (.1390)**
제의없음	-0.2451 (.0539)***	-0.3308 (.0732)***	-0.1579 (.0807)**
거절안함	0.9020 (.0677)***	0.8919 (.0988)***	0.9212 (.0940)***
거절경험있음	0.3752 (.0463)***	0.2974 (.0641)***	0.4584 (.0678)***
관측치	14,374	7,624	6,750
첫일자리 취업	12,770	6,822	5,948
첫일자리 미취업	1,604	802	802
-2logL	8,662.3	4,377.5	4,222.4

〈표 19〉 취업여부 추정결과(계속)

Test	전체		남성		여성	
	LR	자유도	LR	자유도	LR	자유도
적합도검정	1,124.2	(45)***	608.4	(44)***	557.6	(44)***
Test 1: 대학 유형	7.2	(2)**	0.9	(2)	8.2	(2)**
Test 2: 대학 전공	52.6	(6)***	27.3	(6)***	28.5	(6)***
Test 3: 복수, 부, 연계전공	12.4	(3)***	2.7	(3)	13.2	(3)***
Test 4: 대학소재지	35.6	(4)***	19.0	(4)***	16.2	(4)***
Test 5: 대학 성적	7.5	(2)**	3.7	(2)	5.1	(2)*
Test 6: 특수 경험	13.2	(3)***	5.9	(3)	12.4	(3)***
Test 7: 취업 준비	32.5	(7)***	17.7	(7)**	22.3	(7)***
Test 8: 스펙	61.8	(2)***	18.6	(2)***	47.0	(2)***
Test 9: 시험 준비	473.3	(4)***	288.5	(4)***	189.8	(4)***
Test 10: 영어 관련	23.5	(4)***	18.0	(4)***	7.2	(4)
Test 11: 구직과정	371.5	(6)***	176.5	(6)***	197.8	(6)***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2009, 1차조사.

나. 일반적 취업 결정요인의 효과

예상대로 여성의 첫 일자리 취업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학 졸업 당시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지만 남성 표본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유형이 첫 일자리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4년제 대학과 비교할 때, 전문대학 졸업은 취업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교육대학 졸업은 전체 및 여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소재지가 첫 일자리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모든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된다.

대학전공이 첫 일자리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인문계열을 기준으로 할 때, 공학계열과 의학계열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반면 그 외 전공계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는 여성의 첫 일자리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남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

대학에서의 성적은 첫 일자리 취업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남성 표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여성 표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대학 재학 중 휴학 경험이나 일자리 경험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반면 대학 입학을 위한 재수의 경험은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취업교육투자가 미치는 효과

재학 중 취업준비 프로그램 7개 항목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장체험프로그램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에서는 추가로 취업캠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남성에서는 진로취업교과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³⁹⁾

어학분야를 제외한 직업교육훈련에 참여와 취업 이전 자격증의 보유는 첫 일자리 취업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교육훈련의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한) 자격증의 취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자와 비교할 때, 공무원 시험 합격이 첫 일자리 취업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39) 각 프로그램이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노력의 (다른 취업준비를 위한) 기회비용이 이의 긍정적 효과보다 크다면 총효과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의 이질성을 고려할 수도 있다. 즉,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이러한 취약성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으며, 공무원 시험 불합격은 부정적 효과를 가지며 남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반면 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자와 비교할 때, 합격과 불합격 모두 첫 일자리 취업에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데 합격의 부정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불합격의 부정적 효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영어 관련 변수가 첫 일자리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먼저 해외어학연수는 남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반면 여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어학 분야의 직업교육훈련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다만 영어시험 성적은 첫 일자리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는 차이가 있을 것을 알 수 있다.

라. 구직과정이 미치는 효과

대학 졸업 이전에 취업목표를 설정하였을 때 첫 일자리 취업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유의도는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표본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구직활동을 하지만 응시를 하지 않거나 응시를 하였으나 면접을 하지 않았을 때(엄격히는 면접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을 때), 응시를 하였으나 일자리 제의를 받은 경험이 없을 때, 첫 일자리 취업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자리 제의를 경험한 적으면, 이를 거절한 경험이 있든 없든 모두 첫 일자리 취업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제4절 취업교육투자와 첫 일자리 임금수준

1. 방법론

최종학교 졸업 후 취득한 첫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로그 시간당 임금)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분석에서는 먼저 첫 일자리 취업 결정요인과 동일한 변수를 사용한다. 이후 일자리 특성(산업, 직업, 사업체규모 등)을 추가로 고려하지만 기존 변수들의 추정치의 크기나 유의도에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다.

2. 일반적 결정요인의 임금 효과

다음 표에서 보듯, 일반적 결정요인과 취업교육투자를 통제하였을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8.6%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산업과 직업 및 사업체규모 등을 통제하면 이러한 격차는 5.3%까지 줄어든다). 대학 졸업 당시 연령은 시간당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데 연령이 1세 늘어날 때 시간당 임금이 2.7%(남성에서는 2.9%, 여성에서는 2.4%)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⁰⁾

40) 이렇듯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령의 임금효과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계가 연령급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식의 추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연령과 관련되어 임금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변수의 효과를 대변하는 것이다.

〈표 20〉 임금수준 추정결과

	전체	남성	여성
상수	7.4545 (.1562)***	7.3722 (.214)***	7.4732 (.231)***
여성	-0.0866 (.0101)***		
연령(대학졸업당시)	0.0273 (.0027)***	0.0294 (.0039)***	0.0238 (.0039)***
1. 대학유형(4년제 기준)			
전문대학	-0.1624 (.0096)***	-0.1581 (.0134)***	-0.1663 (.0139)***
교육대학	0.1682 (.0297)***	0.1308 (.0565)**	0.1554 (.0355)***
2. 대학 전공(인문계열)			
사회계열	0.0748 (.0131)***	0.1064 (.0212)***	0.0499 (.0165)***
사범계열	0.0882 (.0183)***	0.1331 (.0354)***	0.0646 (.0213)***
공학계열	0.1206 (.0134)***	0.1471 (.0204)***	0.0842 (.0205)***
이학계열	0.0542 (.0149)***	0.0988 (.0239)***	0.0190 (.0189)
의학계열	0.2327 (.0176)***	0.1634 (.0294)***	0.2761 (.0218)***
예체능계열	-0.0604 (.0149)***	-0.0346 (.0246)	-0.0762 (.0184)***
3. 복수, 부, 연계전공			
복수전공	-0.0099 (.0242)	0.0469 (.0409)	-0.0415 (.0296)
부전공	0.0183 (.0236)	0.0942 (.0402)**	-0.0278 (.0287)
연계전공	0.0299 (.0231)	-0.0285 (.0393)	0.0635 (.0282)**
4. 대학 소재지 (서울)			
경기권	-0.1333 (.0099)***	-0.1674 (.0140)***	-0.0939 (.0139)***
충청권	-0.1489 (.0118)***	-0.1751 (.0167)***	-0.1210 (.0167)***
영남권	-0.1627 (.0109)***	-0.1821 (.0155)***	-0.1416 (.0152)***
호남권	-0.2011 (.0125)***	-0.2272 (.0177)***	-0.1731 (.0176)***
5. 대학 성적			
로그(성적)	0.2378 (.0318)***	0.2392 (.0426)***	0.2310 (.0483)***
성적무응답	1.0535 (.1410)***	1.0696 (.1882)***	1.0158 (.2146)***
6. 특수 경험 (없음)			
대학 재수	-0.0036 (.0089)	0.0063 (.0118)	-0.0071 (.0139)
휴학 경험	0.0113 (.0095)	0.0282 (.0163)*	0.0202 (.0124)
재학중 일자리경험	-0.0263 (.0072)***	-0.0325 (.0100)***	-0.0200 (.0101)**
7. 취업 준비 (없음)			
진로취업교과목	-0.0052 (.0086)	-0.0041 (.0123)	-0.0058 (.0118)
직장체험프로그램	-0.0175 (.0096)*	-0.0147 (.0140)	-0.0201 (.0130)
직업심리검사	-0.0006 (.0085)	0.0064 (.0123)	-0.0042 (.0117)
교내취업박람회	0.0402 (.0091)***	0.0333 (.0127)***	0.0467 (.0129)***
상담프로그램	-0.0038 (.0110)	0.0022 (.0160)	-0.0078 (.0149)
면접이력서프로그램	-0.0074 (.0099)	-0.0271 (.0144)*	0.0130 (.0136)
취업캠프	-0.0110 (.0133)	-0.0007 (.0187)	-0.0175 (.0189)
8. 스펙			
교육훈련(어학분야 제외)	0.0044 (.0102)	-0.0024 (.0145)	0.0101 (.0144)
자격증(취업이전)	-0.0294 (.0073)***	-0.0212 (.0100)**	-0.0395 (.0106)***
9. 시험 준비			
공무원시험 합격	-0.3070 (.0520)***	-0.3335 (.0693)***	-0.2821 (.0797)***
공무원시험 불합격	-0.0872 (.0357)**	-0.0936 (.0476)**	-0.0837 (.0545)
전문자격시험 합격	0.3663 (.0486)***	0.3273 (.0637)***	0.4109 (.0756)***
전문자격시험 불합격	-0.0189 (.0338)	-0.0331 (.0445)	-0.0018 (.0522)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2009, 1차조사.

〈표 20〉 임금수준 추정결과(계속)

	전체	남성	여성
10. 영어 관련			
어학연수	0.0679 (.0099)***	0.0749 (.0138)***	0.0568 (.0142)***
교육훈련(어학분야)	-0.0408 (.0320)	-0.0777 (.0526)	-0.0159 (.0396)
로그(영어성적)	0.0091 (.0020)***	0.0094 (.0028)***	0.0080 (.0029)***
영어성적 무응답	0.0473 (.0412)	0.1430 (.0526)***	-0.1012 (.0678)
11. 구직과정			
직업목표	0.0056 (.0072)	0.0128 (.0102)	-0.0053 (.0102)
응시안함	-0.1817 (.0434)***	-0.1658 (.0616)***	-0.1929 (.0608)***
인터뷰안함	-0.1508 (.0273)***	-0.1794 (.0382)***	-0.1210 (.0389)***
제의없음	-0.0968 (.0147)***	-0.1064 (.0205)***	-0.0851 (.0210)***
거절안함	-0.0218 (.0097)**	-0.0235 (.0139)*	-0.0203 (.0136)
거절경험있음	-0.0148 (.0093)	-0.0096 (.0131)	-0.0251 (.0132)*
관측치	12,770	6,822	5,948
R2	0.2193	0.1823	0.2019
조정된 R2	0.2165	0.1770	0.1959
Test			
적합도검정	79.4 (45)***	34.3 (44)***	33.9 (44)***
Test 1: 대학 유형	167.1 (2)***	73.4 (2)***	86.7 (2)***
Test 2: 대학 전공	69.9 (6)***	25.3 (6)***	51.8 (6)***
Test 3: 복수, 부, 연계전공	5.0 (3)***	4.8 (3)***	2.6 (3)*
Test 4: 대학소재지	87.4 (4)***	56.9 (4)***	32.4 (4)***
Test 5: 대학 성적	8.0 (2)***	16.2 (2)***	11.5 (2)***
Test 6: 특수 경험	4.9 (3)***	4.3 (3)***	2.3 (3)*
Test 7: 취업 준비	3.3 (7)***	1.5 (7)	2.4 (7)**
Test 8: 스펙	8.2 (2)***	2.3 (2)	7.1 (2)***
Test 9: 시험 준비	35.6 (4)***	18.3 (4)***	20.8 (4)***
Test 10: 영어 관련	20.4 (4)***	13.9 (4)***	7.4 (4)***
Test 11: 구직과정	14.3 (6)***	9.0 (6)***	5.9 (6)***

대학유형의 임금효과를 보면, 전문대학 졸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효과를 교육대학 졸업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교육대학 졸업자의 시간당 임금이 17% 정도 높은 반면 전문대학 졸업자에서는 16% 낮으며 이러한 차이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소재지의 임금효과를 보면, 첫 일자리 취업 여부에 미치는 효과와 마찬가지로,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모두 13~20%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여성(9~17%)보다는 남성(17~23%)에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전공의 임금효과는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인문계열을 기준으로 할 때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이 긍정적 효과(이학계열의 5.4%에서 의학계열의 23%까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남성에서는 예체능계열이, 여성에서는 이학계열의 임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복수(부, 연계) 전공은 시간당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남성에서는 부전공이, 여성에서는 연계전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평점의 임금효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며 효과의 크기에서 성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재학 중 휴학경험이나 대학 입학 시 재수 여부는 전반적으로 시간당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으나 남성의 휴학 경험은 다소 유의하게 긍정적 효과(2.8%)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은 남자성과 여성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취업교육투자의 임금 효과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전혀 참가하지 않는 표본과 비교할 때, 교내취업박람회를 제외한 대부분 프로그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내취업박람회 참여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첫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을 3~5% 상승시키는 효과를 갖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교내취업박람회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학 분야를 제외한 직업교육훈련에 참여는 첫 일자리 취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지만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취업이전에 획득

한 자격증은, 예상과는 정반대로,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 이를 준비하지 않는 표본과 비교할 때, 이에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첫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전문자격시험에서는 이에 합격하면 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불합격하였을 때 부정적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어학연수와 영어 성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임금효과를 가지지만 어학분야의 직업교육훈련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추가 요인의 임금 효과

졸업 이전 취업목표의 설정은 첫 일자리 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졸업전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표본과 비교할 때, 일자리제의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표본을 제외하고는 구직활동이 첫 일자리 임금수준에는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졸업 이전 취업과 취업목표를 설정한 자의 의중임금은 첫 일자리 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반면 경과기간은 그렇지 않다.

참고문헌

- 강순희·안준기(2010). 대졸자의 실업경험의 낙인효과. 『한국경제연구』, 제28권 제2호, 201-231.
- 김정숙(2009). 대졸자들의 취업준비 활동의 차이 및 직업이행 효과. 『교육과학연구』, 제40권 제1호, 141-165.
- 김지하·박지은(2008). 대학생의 사교육 수요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7권 제1호, 93-121.
- 김태기·류장수·이종훈·이영대(2005). 청년층의 노동시장이행과 인적자원개발(I): 대학재학생의 취업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2005-2-3.
- 민혜리(2003). 대학에서의 과외학습의 유형과 비용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13권 제3호, 133-149.
- 박성재(2005).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첫 번째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5권 제4호, 65-99.
- 박성재·반정호(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이 실태와 정책. 『한국인구학』, 제29권 제3호, 29-50.
- 류장수(2003).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과 특성: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직업능력개발연구』, 제6권 제1호, 1~25.
- 류장수(2005).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수도권대학 조립생과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제28권 제2호, 1~27.
- 안주엽·홍서연(2001). 청년의 학교졸업 후 구직기간 분석.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1호, 19-46.
- 우광호·안준기·황성수(2010). 교육 및 부의 세대가 이전 대학생활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 연구』, 제19권 제3호, 121-150.
- 우해봉·윤인진(2008). 경쟁리스크 생존모형을 통한 청년층의 첫 일자리

- 획득모형.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2호. 225-250.
- 이병희·안주엽·전병유·장수명·홍서연 (2002).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 정지선·김훈호 (2009).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8권 제3호. 89-122.
- 채창균·김안국·오호영(2005a).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해가 인적자원개발(I): 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 기본연구 05-04-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최지희·옥준필(2005b).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 만족도』. 기본연구 05-04-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執筆者

-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대 청년여성 입직실태조사

- 발행연월일 | 2012년 12월 24일 인쇄
2012년 12월 28일 발행
- 발행인 | 이 인 재
-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 1510-74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35
☎ 대표 (02) 3775-5514 Fax (02) 3775-0697
- 조판·인쇄 | 거목정보산업(주) (02) 2164-3232
- 등록일자 | 1988년 9월 13일
- 등록번호 |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 2012